

Naxos new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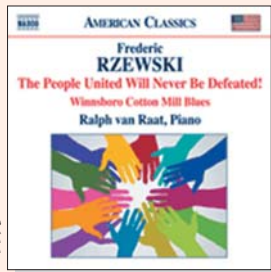
8.570485

하이든:
피아노협주곡 3,4,9,11번
제바스티안 크나우어(pf)
헨르트 뮐러-브뤼
켈른 챔버 오케스트라



8.557042

보테시니: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Vol.2
조엘 광링턴(db)
앤드류 버레스코(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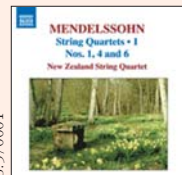
8.559360

제프스카: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변주곡
랄프 판 라트(pf)



8.570554

고다르:
바이올린협주곡 2번,
콘체르토 로맨틱, 시적풍경
클로에 한슬림(vn)
커크 트레버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8.570001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1,4,6번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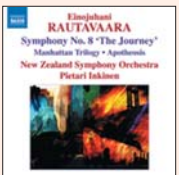
8.570299

메트너:
바이올린소나타 1,2번,
2개의 칸초나와 댄스
로렌스 카알레(vn)
폴 스튜워트(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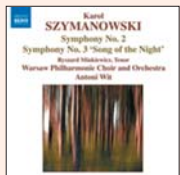
8.570534

바르토크:
발레 <나무왕자> 전곡
마린 알슘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069

라우타바라:
교향곡 8번 '여행',
맨하탄삼부작, 송배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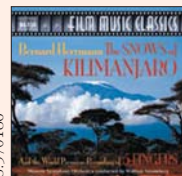
8.570721

시마노프스카:
교향곡 2번,
교향곡 3번 '밤의 노래'
리자르드 민키에비츠(tg)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8.570200

페라:
마크 트웨인 영화의 음악들
빈 소년합창단
윌리엄 페리
빈 심포니, 슬로박 필하모닉



8.570186

허만:
킬리만자로의 눈, 다섯 손가락
윌리엄 스트롬버그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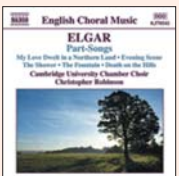
8.570149

퍼셀:
극장을 위한 음악들 Vol.1
여러 가수들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8.570286

로드리고:
기타작품집 Vol.1
제레미 주브 &
주디카엘 페르(guitar)



8.570541

엘가:
파트 송
크리스토퍼 톰슨
캠브리지 대학 챔버 합창단
이안 패링턴(pf)



8.570438

차이코프스카:
가곡 Vol.5
류바 카차르노프스카야(sop)
류바 오르페노바(pf)



8.570425

발라다:
마리아 사비나, 디오니시오
호세 라몬 엔시나
마드리드 코무니타드 오케스트라
와 합창단



8.660198-99

마이어:
오페라 <부부애>(夫婦愛)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퍼 프랑클린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8.66018

휠라:
오페라 <보스턴의 건설>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퍼 프랑클린
보스턴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8.111274

브람스:
교향곡 1번, 대학축전서곡,
바그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 외
오토 클렘페러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8.111092

세고비아 1950년대 아메리칸
레코딩스
다울랜드, 쿠퍼, 라모, 스카
를라티, 비제, 폰세, 무다라, 밀
란, 나라바에스



8.111320-21

베르디:
오텔로 (1947년 음원)
라몬 비나야(오텔로)
아르투르 토스카니니
NBC 심포니와 합창단



8.558186-87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포트레
이트
여러 연주자들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제 30호 | February, March 2008

New Release
장대건 Impressions of Spain
클래식과 뉴에이지 태교음악 '축복의나무'

DVD Hot Issue
TDK 2008 클래식 하이라이트

Cover Story
테너 주제페 디 스테파노를 추모하며



[주제페 디 스테파노의 디스코그래피]

8.110115-16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1949년 녹음)
엘레노어 스테버(비올레타)/
주제페 디 스테파노(알프레도)/
로버트 메릴(제르몽) 외/ 주제페 안토니첼리/

8.110277-79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1949년 녹음)
엘레노어 스테버(원수부인)/
리제 슈테벤스(옥타비안)/
에르나 베르거(조피)/
주제페 디 스테파노(가수) 외/ 프리츠 라이너/

8.110259-60
벨리니: 청교도
밀라노 라 스칼라 (1953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엘비라)/
주제페 디 스테파노(아르투로)/
롤란드 파넬라이(리카르도) 외/ 툴리오 세라핀/

8.110131-32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1953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루치아)/
주제페 디 스테파노(에드گار도)/
티토 곱비(엔리코) 외/ 툴리오 세라핀/

8.110256-57
푸치니: 토스카

주제페 디 스테파노 Giuseppe di Stefano

유형중(음악컬럼니스트)

주세페 디 스테파노는 1921년 벨리니의 고향이기도 한 시칠리아 섬의 카타냐 근교에서 태어났다. 칼라스보다는 두 살 위다. 밀라노로 이주한 다음에는 음악원 대신 사적인 레슨을 통해 성악을 공부했다. 역시 시칠리아 출신인 바리톤 루이지 몬테산토가 그의 중요한 스승이었다. 1943년 입대해 스위스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 로잔느의 라디오를 통해 그의 노래가 방송되면서 즉각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HMV에서 첫 레코딩을 할 기회도 얻었다.

그의 정식 데뷔는 1946년 레지오 에밀리아 시립 오페라에서 공연된 마스네의 〈마농〉 중 데 그류 역이었다. 지중해와 이탈리아의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는 25세 젊은 테너의 청아한 미성은 데 그류에 너무도 잘 어울려 상상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듬해 같은 역으로 라 스칼라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48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리골레토〉의 만토바 공작 역으로 데뷔했고, 4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최고의 테너로 군림했다. 칼라스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자신만의 힘으로 가장 유망한 테너의 한 사람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1952년 라 스칼라로 복귀한 후에는 레퍼토리의 폭을 크게 넓혔다. 리릭 내지 리릭 레제로의 가벼운 역은 물론 베르디 중기 이후의 묵직한 배역인 〈아이다〉의 라다메스, 〈운명의 힘〉의 돈 알바로, 〈가면무도회〉의 리카르도는 물론 베리조모 오페라의 처절한 연기력을 요구하는 〈토스카〉의 카바라 도시, 〈팔리아치〉의 카니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투리두, 〈안드레아 세니에〉의 타이틀 롤까지 뽐어나가게 되었다. 디 스테파노의 가장 화려한 황금기는 이때부터 1957년경까지라고 생각된다.

디 스테파노의 매력은 무엇일까? 유례없이 아름다운 미성?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20세기 전반기의 테너들은 요즘 테너들보다 리리코의 자질이 풍부했다. 티토 스키피, 존 맥코맥은 물론 디 스테파노보다 8년 선행인 페루치오 탈리아비니도 아주 가벼운 리리코 레제로의 최고 경지에 올라 있었으므로 여기에 익숙한 청중들에게 미성만으로 어필하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일까? 후배 테너들이 디 스테파노에게 배울 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씹어 뱉듯이 명확하면서도 우려한 아티큘레이션’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음표를 따라하지 말고 오페라의 가사가 지닌 의미를 표현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에서는 그러다 보면 성악의 원칙에 어긋나 목소리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발성이란 혼자 깨우치는 것이며 교과서적 발성이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가 소리 내는 방식은 다른 리릭 테너와 확실히 다르다. 벨칸토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고음에서 성악적으로 덜 훈련되어 정통적 발성과는 어긋난 모습이 확인된다. 이탈리아 테너들은 별 볼일 없는 가수라도 고음에서 멋진 한방을 들려줄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앞에서 부진했다라도 그 한방으로 깨끗이 사면 받는 것이다. 하지만 디 스테파노는 반대다. 그의 소리는 실제음보다 높게 들리지만, 높은 A음만 올라가도 위태롭고 높은 C음에는 그야말로 젓 먹던 힘을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 결과는 항상 힘겨운 혈떡거림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 약점인 동시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묘미를 보여주는 매력이기도 했다. 같은 리릭 테너라도 언제나 명료한 딕션을 포

밀라노 라 스칼라 (1953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토스카)/
주제페 디 스테파노(카바라도시)/
티토 곱비(스카르피아) 외/ 빅토르 데 사바타/

8.111049-50
베르디: 레퀴엠
밀라노 라 스칼라 (1954년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소프라노)/
오랄리아 도밍게즈(메조소프라노)/
주제페 디 스테파노(테너)/
체사레 시에피(베이스)/ 빅토르 데 사바타/

8.111024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밀라노 라 스칼라 (1954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네타)/
주제페 디 스테파노(카니오)/
티토 곱비(토니오) 외/ 툴리오 세라핀/

8.111025
마스카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밀라노 라 스칼라 (1954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산투차)/
주제페 디 스테파노(투리두)/
안나 마리아 카날리(루치아) 외/ 툴리오 세라핀/

8.111272-73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밀라노 라 스칼라 (1955년 녹음)
안토니에타 스탈라(비올레타)/
주제페 디 스테파노(알프레도)/
티토 곱비(제르몽) 외/ 툴리오 세라핀/

8.111242-43
베르디: 리골레토
밀라노 라 스칼라 (1955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질다)/
주제페 디 스테파노(만토바공작)/
티토 곱비(리골레토) 외/ 툴리오 세라핀/

8.111280-81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밀라노 라 스칼라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레오노라)/
주제페 디 스테파노(만리코)/
페도라 바르비에리(아주체나) 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8.111278-79
베르디: 가면무도회
밀라노 라 스칼라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아멜리아)/
주제페 디 스테파노(리카르도)/
티토 곱비(레나토) 외/ 안토니오 보토/

기하지 않던 디 스테파노의 이 같은 방식이 청중에게 한층 해맑은 인상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만류한 배경에는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레코딩이 격감하는 시기로 추정하면 대략 1958년부터 디 스테파노의 목소리는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으니 젊음을 무기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몸을 혹사시킨 결과로는 너무 가혹한 쇠퇴였다. 본질적으로 리릭 테너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드라마틱한 영역으로 범위를 넓힌 것도 화근이었을지 모른다.

오페라 전곡 중 마지막 중요 녹음은 1962년 카라얀 지휘의 〈토스카〉였다. EMI에서 오페라 레코딩 기회를 잃은 후 거의 4년만의 재기였으며 음반사도 DECCA로 바뀌었다. 이때 그의 나이 41세. 다른 테너라면 최고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에 스테파노는 일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일찍 쇠퇴기를 맞이했던 디 스테파노는 나폴리 민요를 통해 인기를 유지해 나갔다. 그는 다섯 차례쯤 나폴리 민요를 녹음했는데 EMI에서 세 장, DECCA에서 두 장의 LP가 출시되었다. 오페라 레코딩 기회가 줄어들자 교육지책으로 영역을 다각화한 셈이다. 나폴리 민요는 테너의 음역에 잘 어울리면서도 디 스테파노의 취약점인 극단적 고음은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가사를 잘 씹어 전달하는 듯한 디 스테파노의 미덕은 나폴리 방언 특유의 액센트나 발음을 맛깔스럽게 재현하여 언제나 풋풋한 청아함과 순수한 열정, 이탈리아 특유의 애수가 완벽하게 스며든 노래를 들려줄 수 있었다.

2008년 3월 3일 그가 세상을 떠났다. 2004년 12월 케냐 나이로비 인근의 별장에서 아내의 목걸이를 빼앗으려는 괴한을 막으려다 흉기로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던 지 3년 4개월 만이다. 사고 직후 큰 수술을 받고 밀라노도 후송된 이후 근황을 접할 수 없었는데, 그동안 거의 병원에서 지냈고 계속 혼수상태는 아니었으나 거동이 불가능한 중환자였던 모양이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코마에 빠진 것은 작년 12월부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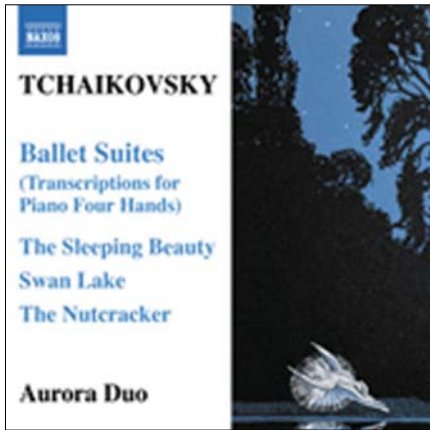
— 이 원고는 음악컬럼니스트 유형중의 저서 〈불멸의 목소리〉(시공사)에서 발췌·전제한 것입니다. 전제를 허락해주신 유형중님께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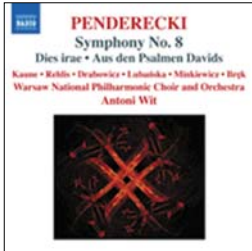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8.570418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모음곡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
아우로라 듀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은 로맨틱 발레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차이코프스키는 이들이 콘서트용 모음곡은 물론,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편곡으로도 자주 연주되기를 원했고, 몇몇 피아니스트들이 이에 도전하였다. 백조의 호수는 에두아르도 랑거, 호두까기 인형은 슈테판 에시포프가 편곡하였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라흐마니노프의 편곡을 작곡가가 직접 보완하였다.



8.570450
펜데레츠키: 교향곡 8번, 디에스 이레, 다비드 시편
여러 가수들/ 바르샤바 필하모닉 & 합창단/ 안토니 비트
펜데레츠키 교향곡 8번의 세계 최초 레코딩. 12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칸타타 풍의 교향곡은 19/20세기 독일 시집인 '덧없음의 노래'에 기초한 작품으로 인생무상과 부활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을 기리는 방대한 스케일의 오라토리오 '진노의 날'과 세계음악계에 작곡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인 '다비드 시편에서'가 함께 수록되었다.



8.559313
앤더슨: 피아노협주곡, 나팔수의 휴일 외 관현악소품들
제프리 비젤(pf)/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라트킨
미국 라이트 뮤직의 대가 크로이 앤더슨의 관현악 작품집. 앤더슨은 정규 클래식 교육 과정을 거쳤지만 그의 음악은 팝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폭 넓은 대중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었다. 그의 대표곡들인 '나팔수의 휴일', '블루 탕고', '피들 패들', '중국 인형', '아리에타'를 비롯 1989년 리마비벌 된 이후 급속도로 연주회수가 늘고 있는 피아노협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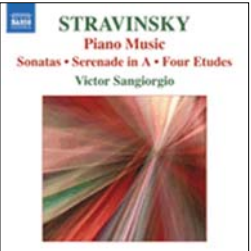
8.559349
허터: 전자, 환상소품, 마천루, 멜랑콜리 랙, 스틸 라이프
원스턴 최(pf)/ 모라비아 필하모닉/ 안드레아스 헤를 바움가르트너 외
그레고리 허터(1971년생)는 현대의 다양한 음악사조를 적절히 절충해 놓은 독특한 음악스타일로 미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다. <전자>와 <마천루>처럼 기계적인 사운드로 도시의 복잡한 이미지를 그려낸 작품이나 불협화음을 과감히 활용한 <환상소품집>에서부터 신남만주의 스타일의 감동적인 오보에 협주곡 <Still Life>와 랙타임 <멜랑콜리 랙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의 작품들을 만난다.



8.559362
카터: 현악사중주 1번 & 5번
퍼시픽카 현악사중주단
올해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현존 최고령 작곡가 엘리엇 카터. 낙소스에서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현악사중주 전곡 시리즈를 개시하였다. 개시작인 본 음반에는 1951년에 완성한 도전적인 1번과 1995년에 장르에 대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완성한 회심의 걸작인 5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59345
우리넨:
단테 삼부작 (실내악 버전)
더 그룹 오브 컨템퍼러리 뮤직
미국의 중견 작곡가 찰스 우리넨(1938년)은 과학과 문학에서 다양한 창조적 영감을 얻어왔다. 그의 가장 야심찬 작품 중 하나인 '단테 삼부작' 역시 단테의 신곡 속의 장면들을 표현한 발레 작품이다. 3개의 악장은 각각 지옥을 향한 '베르질리우스의 미션', '연옥을 향한 장엄한 행렬', '천국을 향한 빛의 강물'을 섬세하고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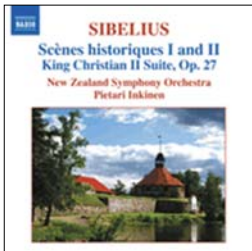
8.570377
스트라빈스키: 피아노소나타, 세레나데, 4개의 연습곡 외
빅터 산조르조(pf)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 작품들은 일생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던 작곡가의 창작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1908년 작품인 4개의 연습곡은 복잡한 리듬 패턴이 적용된 난곡이며, 1924년 작인 피아노소나타는 18세기 작곡 스타일을 모방한 복고풍 작품이다. 1925년작인 세레나데는 각 악장의 연주시간이 당시 78회전 디스크 한 면의 수록시간에 맞추어 완성한 작품이다.



8.570354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집 Vol.5 (그랜드 듀오 외)
알란 실러 & 존 험프리
슈베르트는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별궁에서 백작의 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동안 다수의 피아노곡들을 완성하였다. 그 중 하나가 교향곡에 육박할 정도의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야심찬 작품인 '그랜드 듀오'다. 4개의 랠틀러는 이에 비해 한결 가벼운 성격의 소품이며, 슈베르트가 남긴 가장 뛰어난 변주곡에 하나인 오리지널 테마에 의한 변주곡 D.813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316
쇼스타코비치: 영화음악 <오드나> 전곡
여러 가수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마크 피체랄드
<Odnal>는 쇼스타코비치의 두번째 영화음악이다. 그는 이 작품을 위하여 유래없이 방대한 편성의 스코어를 완성하였다. 브라스 밴드인 반다와 전자음향악기인 테레민, 배럴 오르간 등의 독특한 악기를 활용하였고, 3명의 솔로 성악가와 합창단을 요구하는 대작이다. 지휘자 피체랄드가 오리지널 필름을 토대로 사운드트랙을 재구성하였고, 미망인 이리나 쇼스타코비치의 동의하에 최초로 전곡 녹음이 이루어졌다.



8.570068
시벨리우스: Scene Historique 모음곡, 크리스티안 2세 모음곡
뉴질랜드 심포니/ 피에타리 인킨넨
Scene Historique 모음곡 1번은 역사극을 위한 무대음악에서 발췌한 작품으로 당시 러시아 치하에서 점차 힘을 모으던 핀란드 민족주의에 편성한 애국적인 성격의 작품이다. 이에 반해 모음곡 2번은 세 곡의 창작곡들로 구성된 극부수음악에서 발췌한 것으로 왕의 사랑과 연적의 암살, 그리고 복수를 작곡가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그려낸 곡이다.



8.559335
퍼취스: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태양찬가, 가을 리듬 외
티모시 존스(hrm)/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조안 팔레타
케네스 퍼취스는 정규 오케스트라라는 물론, 재즈밴드, 브라스밴드, 실내악 앙상블 등의 여러 표현매체를 위한 다양한 음악들을 작곡해왔다. 본 음반은 낙소스를 통해 선보이는 이 작곡가의 두번째 정규 관현악곡집. 런던 심포니의 호른 수석인 티모스 존스를 위한 호른 협주곡 '태양찬가', 런던 심포니에 헌정된 '유나이티드 아티스츠', 화가 잭슨 폴락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두 작품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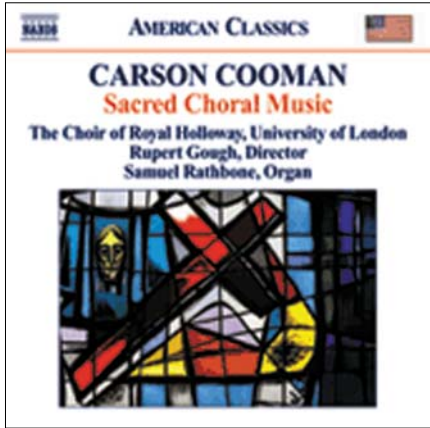
8.570313
라인베르거: 오르간 작품집 Vol.6 (소나타 14-16번)
볼프강 퀴브츠(폴다 성당 오르간)
요제프 라인베르거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다수의 작품을 남긴 작곡가지만, 오늘날은 독일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오르간 음악 작곡가로 기억된다. 그는 일생에 걸쳐 오르간을 위한 20개의 소나타와 22개의 트리오를 작곡하였다. 그의 오르간 소나타들은 방대한 규모와 고도의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난곡들로, 19세기에 완성된 독일 오르간 음악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절품들이다.



8.570326
파슈: 예수 그리스도 수난곡, 관현악 모음곡(서곡)
여러 가수들/ 부다페스트 스콜라 칸토름/ 카펠라 사라비아/ 마리 테레아-스미스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는 바흐의 바로 앞서서 라이프치히 토마스 학교의 교사를 맡았으며 당대 중부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전형적인 바로크 총곡 모음곡인 서곡 D단조와 이른바 브로케스 수난곡이라고 불리는 예수 수난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 작곡가가 루터교 종교합창곡과 세속 기악곡 양분야 모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음을 말해준다.



8.570231
모차르트: 오라토리오 <다윗의 회심>, 레지나 첼리
여러 가수들/ 이모탈 바흐 앙상블/ 라이프치히 캄메 오케스트라 / 모르텐 솔트-엔센
1785년 빈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모차르트에게 빈 음악가협회에서 자선콘서트용 작품을 위촉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작곡가의 유일한 오라토리오인 <다비드의 회심>이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위해 자신의 미사 C단조의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재활용하였고, 두 개의 근사한 아리아들을 추가했다. 다섯 편의 걸출한 합창곡과 목관을 적극 활용한 관현악 반주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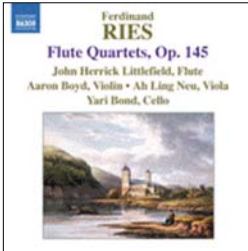
8.559361
쿠맨: 종교합창곡(미사 브레비스, 신세계 캐롤, 미니피캇 외)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로열 홀로웨이 콰이어/ 루퍼트 거프
미국의 청년 작곡가 카슨 쿠맨은 25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에 걸쳐 다수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본 음반의 종교합창곡들은 마치 존 러터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아름답고 불임성 좋은 선율과 명료한 악곡구조가 돋보이는 수작들이다. 런던 대학교의 로알 홀로웨이 합창단의 투명한 앙상블이 작품의 간결한 아름다움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8.660211-13
비발디: 오페라 <그리셀다>
여러 가수들/ 오페라 인 콘서트/
아라디아 앙상블/ 케빈 말론
<그리셀다>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의 한 에피소드를 내용으로 한 3막 오페라다. 테살리의 왕비 그리셀다가 남편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거치며 보이며, 고난이도의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아리아들로 유명하다. 특히 2막에 등장하는 콘스탄차의 아리아 'Agitata da due venti'는 바르톨리, 조수미 등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극악의 콜로라투라 곡이다.



8.660235-36
로시니: 오페라 <호수의 여인>
소냐 자나시 외/ 카이저슬라우테른 SWR 오케스트라/ 알베르토 체다
로시니의 오페라 <호수의 여인>은 1819년 나폴리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얼터 스코트의 동명 낭만시에 기반을 둔 곡이다. 16세기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일랜드의 부족장들과 제임스 5세 사이의 갈등과 비극적인 사랑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본 음반은 2006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 실황으로, 정상급 메조 소나 가나시가 여주인공 엘레나를, 이 시대 최고의 로시니 전문가인 알베르토 체다가 지휘를 맡았다.



8.570330
리스: 플루트 사중주 Op.145
존 헤릭 리틀필드(II)/ 아론 보이드(vn)/ 아 링 네우(va)/ 아리본드(vc)
베토벤의 애제자로 더욱 널리 알려진 페르디난트 리스(1784-1838)는 이제 작곡가로도 많은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플루트사중주 op.145는 공연실전에서 은퇴한 뒤 라인란트에서 만년을 보낸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당시 대세가 되었던 초기 낭만주의 스타일로 작곡되었다. 스페인 풍의 종약장이 특징적인 1번, 우울한 정서가 지배하는 2번, 밝은 피날레가 인상적인 3번 등 저마다의 개성들이 뚜렷하다.



8.570501
바로크 트럼펫협주곡(토렐리, 알비노니, 헨델, 텔레만 외)
토마스 라이너(tp)/ 프로츠하임 남서독일 챔버 오케스트라/ 제바스티안 테반켈
피콜로 트럼펫의 발전은 오리지널 바로크 트럼펫 레퍼토리의 확장으로 오보에를 위해 작곡된 작품들의 트럼펫을 위한 활발한 편곡 양쪽 모두를 가능케 하였다. 본 음반에는 토렐리와 가브리엘리, 파슈, 텔레만의 트럼펫을 위한 작품들과 더불어, 알비노니와 헨델이 오보에를 위한 작품들의 트럼펫 편곡까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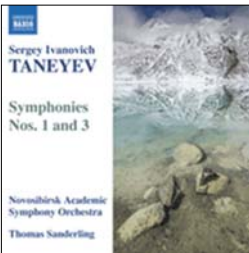
8.570280
반할: 교향곡 Vol.4 (La Tempesta 외)
케빈 말론/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요한 바티스트 반할의 교향곡들은 고전시대 교향곡 발전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과감하고 창조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의 교향곡들은 이제 서서히 합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본 음반에는 반할 교향곡 시리즈의 4번째 음반으로 특히 C장조 교향곡은 하이든이 높이 평가했던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교향곡의 하나다. 'La tempesta'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표제적인 종약장이 인상적인 Eb장조 교향곡도 주목할 만하다.



8.557970
칼로미리스: 삼부작, 교향곡 3번, 3개의 그리스 춤곡 외
니키타스 차키로글로우(narr)/ 아테네 국립교향악단/ 바이런 피데치스
마놀리스 칼로미리스(1883-1962)는 근대 그리스 음악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낭송과 관련악을 위한 교향곡 3번 '팔라미안'은 시인이자 작곡가의 정신적 지주였던 코스티스 팔라마스의 죽음을 기리는 작품으로 근대 그리스음악의 새 지평을 열었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음악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3개의 그리스 춤곡과 호방한 스케일의 또 다른 관련악 걸작인 '삼부작'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8.557250
북스테후데: 실내악 작품 전집 Vol.3
존 홀로웨이, 우르술라 바이스(vn)/ 얀 테르 린덴(viol)/ 라스 올릭 모르텐센(cemb)
앞서 두 장의 음반으로 국내 바로크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존 홀로웨이와 동료들의 북스테후데 실내악 시리즈의 세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작품번호가 붙지 않은 6곡의 소나타를 수록한 것으로, 느린 악장의 장엄함, 능숙한 푸가 기법, 우려한 선율과 우아한 춤곡악장 등 작곡가의 장점으로 가득 채워졌다. 2008년 3월 21일 존 홀로웨이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8.570336
타네예프: 교향곡 1번 & 3번
토마스 잔데링/ 노보시비르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타네예프는 루빈스타인과 차이코프스키의 제자였으며, 라흐마니노프와 스크리야빈의 스승이었다. 그의 교향곡 1번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2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는 곡으로 능숙한 관련악법이 두드러지며, 10년 뒤에 완성된 3번은 고도의 대위법적 기교가 적용된 빛나는 마지막 악장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쿠르트 잔데링의 큰 아들 토마스 잔데링이 시베리아를 대표하는 노보시비르스크 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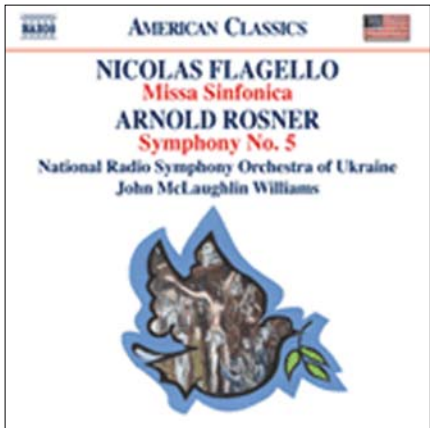
8.570361
JC 바흐: 6개의 건반 소나타 Op.17
알베르토 노세(pf)
JS 바흐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한 크리스티안은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이력 대부분을 보냈기에, 런던의 바흐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뛰어난 건반주자였음에도, 건반을 위한 작품들은 비교적 많지 않는데, 6개의 소나타로 구성된 Op.17은 영국을 방문했던 어린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준 작품들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산탄데르 콩쿠르 우승자인 알베르토 노세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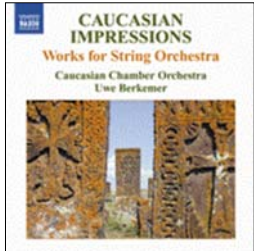
8.570341
칠레 기타 음악(콘트레라스, 살리나스, 레스투치, 산체스 외)
호세 안토니오 에스코바르(guitar)
자국의 독특한 전통음악과 모던 클래식 작곡기법에 영향을 받은 신세대 칠레 작곡가들의 다양한 형식과 감각적인 리듬에 기반을 둔 독창적인 기타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칠레 현대음악계의 최장격인 비올레타 파라의 1961년작 'Anticuecas'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2000년대에 완성된 최신작들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는 또 다른 이 나라 특유의 색채를 맛볼 수 있다.



8.570727
비제/세레브리에르: 카르멘교향곡 외
호세 세레브리에르/ 미합중국 해병대 군악대
지휘자 겸 작곡가 호세 세레브리에르가 편곡한 카르멘 교향곡은 원곡 오페라의 관련악 간주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완성한 매력적인 관악합주용 작품이다. 멕시코 작곡가 레부엘타스의 멕시코 춤곡과 아르헨티나 작곡가 히나스테라의 에스탄사 모음곡에서 발산되는 흥겨운 라틴 리듬도 인상적이다. 본 음반은 2007년 미 해병대 군악대의 콘서트 실황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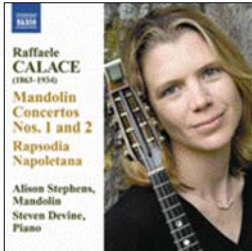
8.559347
플레젤로: 미사 신포니카 / 로즈너: 교향곡 5번
존 맥러플린 윌리엄스/ 우크라이나 국립 방송교향악단
두 미국 작곡가의 관련악을 위한 미사 교향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가톨릭신자였던 플라젤로와 달리, 로즈너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미사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두 작품 모두 미사 통상문의 다섯 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미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장엄함과 신비함을 갖추었다. 기본적인 음악 스타일은 신낭만주의 계열에 기반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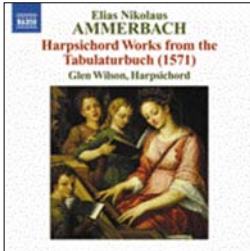
8.570324
코카서스 임프레션(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음악들)
우베 베르케머/ 코카서스 챔버 오케스트라
구 소련으로 부터 독립한 코카서스의 세 나라(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합점이라는 지정학적 특징에 따라 동양과 서양의 특징을 공유하는 독특한 음악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 음반에는 이 지역 출신 다섯 작곡가들의 관현악 작품 여덟 작품이 수록되었다. 모두 자국의 전통음악의 영향과 구 소련의 사회주의사실주의의 입김이 함께 포함된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8.570406
가드너: 피아노협주곡 1번, 교향곡 1번 외
피터 도노휴(pf)/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영국 작곡가 존 가드너(1917년생)는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긴 작곡가였음에도 오래도록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교향곡 1번과 피아노협주곡은 모두 보수적인 작곡기법과 전통적인 고전 양식미에 충실했던 영국 근대 음악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한여름 축제'는 소박하고 친근한 영국 라이트 클래식의 전형과도 같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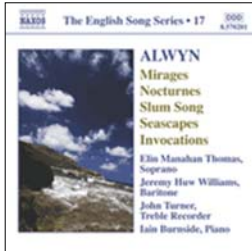
8.570434
칼라체: 만돌린협주곡 1,2번, 나폴리 랩소디 외
엘리슨 스티븐스(mandolin)/ 스티븐 데빈(pf)
라파엘레 칼라체(1863-1934)는 당대의 저명한 만돌린 비르투오조였으며, 이 악기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의 만돌린협주곡들은 관현악이 아닌 피아노반주와 만돌린 독주를 위해 작곡된 것들로, 전통적인 3악장 협주곡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정통 서양음악사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한 만돌린의 또 다른 진면목을 이 음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8.570335
암머바흐: 하프시코드 작품집
글렌 윌슨(cemb)
16세기 라이프치히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엘리야스 암머바흐의 작품집 Tabulaturbuch는 건반과 음악이론 교습을 위해 편찬되었던 작품집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식음형이 추가된 당대의 여러 춤곡과 노래들로 구성되었다. 자신의 창작곡과 더불어 왓수스, 켄플, 로레, 이자크 등의 선배작곡가들의 작품, 그리고 작자미상의 당시 작품들의 편곡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0283
R.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브렌타노 리트 외
리카르다 메르베트(sop)/ 바이마르 슈타츠헨펠레/ 미카엘 할라스
사망 1년 전인 1948년 R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예견하는 듯한 마지막 걸작인 '4개의 마지막 노래'를 완성하였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명상과, 밤의 신비한 마력을 소재로 삼은 이 연가곡은 독일 리트 역사상 가장 걸출한 걸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함께 수록된 6곡의 브렌타노 리트는 비르투오조적인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쾌활한 성격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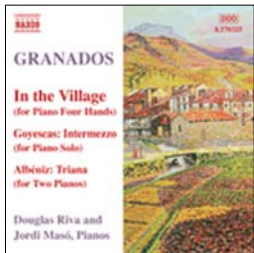
8.570201
올윈: 미라쥬, 6개의 야상곡, 바다풍경, 기원
엘린 머너한 토마스(sop)/ 제레미 후 윌리엄스(bar)/ 이안 번사이드(pf)
윌리엄 올윈은 관현악, 실내악, 성악, 기악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서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4세트의 연가곡은 원숙기에 다른 노련한 작품 스타일을 보여준다. 바리톤을 위한 여섯 야상곡은 제목역사상 가장 걸출한 걸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함께 수록된 6곡의 브렌타노 리트는 비르투오조적인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쾌활한 성격의 작품이다.



8.570485
하이드: 피아노협주곡 3,4,9,11번
제바스티안 크나우어(pf)/ 헬무트 뮐러-브릴/ 뮐른 챔버 오케스트라
하이드는 모차르트와 달리 건반연주자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남긴 건반을 위한 협주곡들은 모차르트의 작품 못지 않은 단정한 구성과 아름다운 선율미를 자랑한다. 마지막 헝가리 론도가 인상적인 11번, 칸타빌레의 서정미와 피날레의 활기가 좋은 대조를 이루는 3번, 극적이면서도 우아한 안단테 칸타빌레가 아름다운 4번, 아가자 기한 종악장의 미뉴엣이 매력적인 9번 등을 수록하였다.



8.557042
보테시니: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Vol.2
조엘 퀴어링턴(db)/ 앤드류 버래시 코(pf)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일컬어졌던 보테시니. 그의 작품들은 독주악기로서의 더블베이스의 뛰어난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격한 처음으로 감상하는 G 선상의 아리아나 쇼팽의 연습곡 편곡이 색다르며, 클라리넷과 더블베이스 이중주 역시 참신하다. 선율미와 조절기교가 어우러진 '텐다의 베아트릭체'에 의한 환상곡, 선율의 아름다움이 각별한 콘체르토 2번 등등 더블베이스의 매력을 만끽하게 되는 음반.



8.570325
그라나도스: 마을에서, 고예스카스 간주곡, 2개의 군대행진곡 외
더글라스 리바 & 호리드 마조(pf)
그라나도스 피아노 작품 전곡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오페라 '고예스카스' 중의 간주곡은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이지만, 자신의 편곡에 의한 피아노 버전 역시도 원곡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자연 또는 여인들에 의해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초기 소품들과 더불어, 피아노 듀엣을 위한 군대행진곡과 알베니스의 '트리아나'에 대한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편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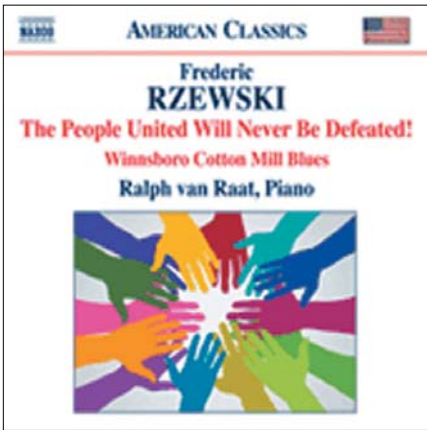
8.570532
카푸스틴: 피아노소나타 2, 15번, 재즈스타일의 24개의 전주곡 발췌 외
존 살먼(pf)
니콜라이 카푸스틴(1937년생)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음악을 배웠던 작곡가로, 메트너, 라흐마니노프, 스크리야빈 등의 러시아 로맨틱시즘과 오스카 피터슨과 아트 테이텀과 같은 정통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영향이 어우러진 독특한 피아노 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24곡의 재즈 스타일의 전주곡과 피아노소나타 15번은 이러한 작곡가의 작품 스타일을 확실히 보여준다.



8.570535
브뤼멜:
미사 '축복받은 동정녀' 외
스페쿨룸 앙상블
안토니오 브뤼멜은 조스캥의 제자로 추정되는 플랑드르 악파의 또 하나의 거장이었다. 그는 파리 노트르담의 성가대장으로 장기간 재직했으며, 오브레흐트의 후임으로 페라라의 데스테 가문을 위해 봉직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로마에서 활동하였는데, 미사 '축복받은 동정녀'는 이 시기에 완성된 원숙기의 작품이다.



8.570381
슈베르트: 미사 6번 D.960, 스타바트 마테르 D.175
이모탈 바흐 앙상블/ 라이프치히 챔버 오케스트라/ 모르텐 슐트-엔센
슈베르트가 자신의 마지막 해에 완성한 뛰어난 종교합창곡인 미사 6번은 작곡가의 사망 이후 1년간 한번도 연주된 적이 없었다. 글로리아와 크레도의 푸가파트는 슈베르트가 대위법에도 정통했음을 잘 보여주며, 자신의 천부적인 선율감각 역시 작품 전곡에 걸쳐 빛을 발한다. 관현악법상의 특징적으로는 종교적인 장엄함을 한결 돋보이게 하는 트럼본의 적극적인 활용이 인상적이다.



8.559360
제프스카: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변주곡
랄프 판 라트(pf)
칠레의 민중가요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에 기초한 이 변주곡은 골드베르크나 디아벨리의 명성을 계승한 20세기 피아노 레퍼토리의 보석과도 같은 작품이다. 아를랭의 걸출한 연주가 이 작품을 더욱 빛나게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연주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기대주 판 라트의 서정적인 연주는 격정적이었던 아를랭과의 차별화는 물론, 이 작품 내면의 섬세한 감성까지도 새롭게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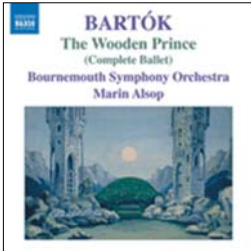
8.570554
고다르: 바이올린협주곡 2번, 콘체르토 로맨틱, 시적풍경
클로에 한슬립(vn)/ 커크 트레버 /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지금의 오페라 '조슬랭' 중의 자장가로만 기억되는 이름이지만, 고다르는 바이올린의 명인이자 작곡가로 낭만시대를 풍미했던 일찍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로맨틱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 서정적인 선율로 가득한 관현악곡 '시적풍경'이 함께 수록되었다. 아담스의 협주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클로에 한슬립의 두번 째 낙소스 음반.



8.570001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1,4,6번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들은 역동적인 오프닝, 통렬한 느린 악장, 한여름밤의 꿈을 연상케 하는 스케르초, 긴장넘치는 무궁무늬의 종악장을 특징으로 한다. 본 음반에는 누나 파니의 죽음 직후에 완성한 비극적인 분위기의 6번, 싱싱한 기백으로 가득한 1번, 결혼 직후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4번을 수록하였다.



8.570299
메트너: 바이올린소나타 1,2번,
2개의 칸초나와 댄스
로렌스 카알레(vn)/ 폴 스투워트(pf)
아렌스키와 타네예프의 제자였던 니콜라이 메트너는 피아노 작품들로 유명하지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곡의 매력적인 작품들도 완성하였다. 소나타 1번은 숲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생기넘치는 작품, 서사적인 구성의 소나타 2번은 러시아 낭만음악의 정서를 짙게 머금은 작품으로 특히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두번째 악장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각별하다.



8.570534
바르톡: 발레 <나무왕자> 전곡
마린 알습/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습 바르톡 시리즈의 최신작, 발레 '나무왕자'는 오페라 '푸른수염 영주의 성'의 대본을 담당했던 벨라 발라스의 동화에 기초하였다. 바르톡은 이 동화가 풍기는 신비적인 느낌에 이끌려 이를 발레로 완성하였다. 마치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도입부를 연상케 하는 도입부에 이어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담은 여러 춤곡들에 이어진다. 작품의 백미인 왕자의 숭배 장면에서 바르톡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화려하게 빛난다.



8.570069
라우타바라: 교향곡 8번 '여행', 맨하탄삼부작, 숭배
피에타리 인키넨/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우타바라는 현존 핀란드출신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폭넓은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다. '숭배'는 교향곡 6번의 종악장을 독립 관현악곡으로 확대한 작품으로, 정화된 밤이나 메타모르포젠과 같은 후기낭만음악의 정서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맨하탄 삼부작은 뉴욕의 3가지 인상을 보수적인 조성체계를 통해 표현한 작품. 그의 가장 최신 교향곡인 8번 '여행'에서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은 스케르초 악장이 단연 돋보인다.



8.570721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2번, 교향곡 3번 '밤의 노래'
리자르트 민키에비츠(te)/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교향곡 2번은 시마노프스키가 R 슈트라우스와 스크리아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시절의 작품으로 독주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과 관현악의 강력한 파위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테너 솔로와 합창단을 요구하는 교향곡 3번 '밤의 노래'는 중세 페르시아 신비주의자의 시의 폴란드어 번역을 텍스트로 한 작품으로 이국의 밤의 묘한 신비와 매력을 세련된 서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8.570541
엘가: 파트 송
크리스토퍼 롤슨/ 캠브리지 대학 챔버 합창단/ 이안 패링턴(pf)
엘가의 유명한 파트 송인 'My love dwell in a northern land'가 처음 발표되었던 1890년, 수많은 합창단들이 경쟁적으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본 음반에는 이 작품 외에도 아름다운 선율의 'Torrents in Summer', 반음계의 선율 진행이 독특한 'Owl', 작곡가 스스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했던 'There is sweet music'과 같은 매력적인 작품들로 가득하다. 합창 음악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8.570438
차이코프스키: 가곡 Vol.5
류바 카차르노프스카야(sop)/ 류바 오르페노바(pf)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은 작곡가의 다른 장르의 작품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 100편이 넘는 가곡들을 작곡했는데, 여러 오페라를 통해 발췌되었던 성악곡에 대한 재능이 가곡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었다. 차이코프스키 가곡에 관한한 최고의 가수로 등극한 러시아의 소프라노 류바 카차르노브사가 야가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인 이번 신보에서도 변함 없이 표정 풍부한 노래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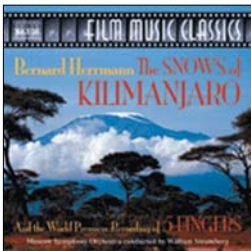
8.570425
발라다: 마리아 사비나, 디오니시오
호세 라몬 엔시나/ 마드리드 코무니다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발라다는 스페인의 전통음악적인 요소와 아방가르드 기법을 조합했던 작곡가다. 버섯을 이용한 멕시코 대체의료의 대가이자 영적지도자이기도 했던 마리아 사비나의 이야기를 극적인 칸타타 형태로 표현한 '마리아 사비나'는 '게르니카'와 더불어 발라다의 음악세계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디오니시오 라드루에호를 추모하는 작품인 '디오니시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8.660198-99
마이어: 오페라 <부부애>(夫婦愛)
여러 가수들/ 크리스토퍼 프랑클린/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지몬 마이어의 '부부애' (L'amor coniugale)은 베토벤의 '피델리오'와 동일한 장 니콜라스 부이의 리브레토에 기초한 오페라다. 1805년 초연 당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동안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던 비운의 작품이다. 배경이 17세기 폴란드로 바뀌었지만, 기본 내용은 '피델리오'와 거의 유사하다. 본 음반은 2004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 기간 중의 실황을 녹음한 것이다.



8.570200
페리:
마크 트웨인 영화의 음악들
빈 소년합창단/ 윌리엄 페리/ 빈 심포니, 솔로박 필하모닉 외
윌리엄 페리는 하버드에서 힌데미트와 피스톤을 사사했던 작곡가다. 그가 음악을 맡았던 5편의 마크 트웨인 영화의 음악을 수록하였다. 빈 소년합창단의 투명한 앙상블이 아름다운 '신기한 이방인', 하모니카와 밴조 등의 독특한 사운드가 미국의 정취를 한껏 대변하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미시시피에서의 생활', 프랑스,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이국적 색채를 담은 '철부지의 해외여행'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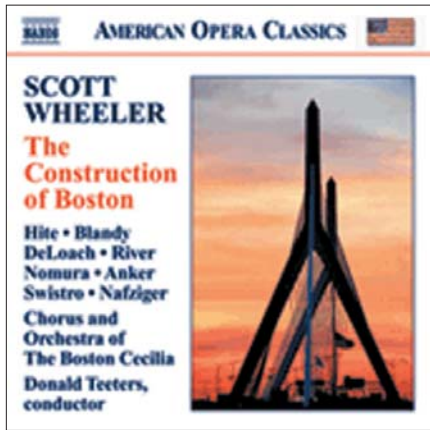
8.570186
허만:
킬리만자로의 눈, 다섯 손가락
윌리엄 스트롬버그/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버나드 허만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싸이코'의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다. '시인 케인', '텍스드라이버' 등의 음악을 맡았으며, 본 음반에 수록된 그레고리 펙 주연의 추억의 영화 '킬리만자로의 눈' (1952) 역시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50년대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전형과 같은 아름다운 선율과 안락한 분위기가 전곡을 지배한다. 같은 해 개봉된 만키에비츠 감독의 첩보 영화 '다섯 손가락'의 배경음악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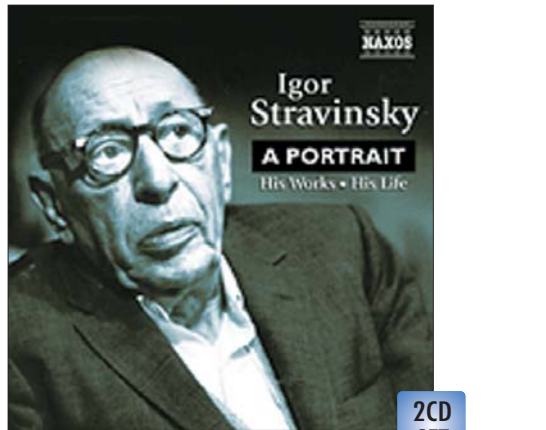
8.570149
퍼셀: 극장을 위한 음악들 Vol.1
여러 가수들/ 케빈 말론/ 아라디아 앙상블
퍼셀이 극장음악은 그의 마지막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곡되었다. 장엄한 서곡, 유쾌하거나 슬픈 노래들, 흥겨운 춤곡이 연극의 막간 또는 시작에 앞서서 관객의 흥을 돋웠다. 프랑스 풍의 부레와 자국의 혼파이프, 스킵 트리가 적절히 배분된 '암피트리온', 소박하면서도 흥겨운 지그와 멜랑콜릭한 사콘느가 인상적인 '튀엠킨 고르디우스의 매듭', 우아한 미술사의 춤을 담은 '시르시'(키르케) 등을 수록하였다.



8.570286
로드리고: 기타작품집 Vol.1
제레미 주브 & 주디카엘 페르와 (guitar)
맹인이라는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던 로드리고, 스페인 작곡가답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악기인 기타를 위해서 유명한 아랑 켄츠협주곡을 비롯한 다수의 뛰어난 작품들을 완성하였다. 향토적인 정취를 가득 담은 자신의 첫 기타소나타인 소나타 지오킨사, 판당고, 파사칼리아, 자파테아도와 같은 세 가지 전통 춤곡을 엮은 3개의 스페인 소품, 두대의 기타를 위한 톤다리아 등을 수록.



8.669018
휠라: 오페라 <보스턴의 건설>
여러 가수들/ 도널드 티터즈/ 보스턴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보스턴 토박이 작곡가 스캇 휠라의 오페라 <보스턴의 건설>은 1962년에 작곡이 시작되어 여러 번의 개작을 거쳐 2002년에 최종버전으로 마무리된 작품으로 작곡가는 이를 '포스트모던 바로크 오페라'라고 불렀다. 길버트&설리반의 오페레타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레히트와 바일의 극음악 등의 여러 특징들이 혼재된 독특한 성격의 작품. 본 음반은 2007년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의 실황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다.



8.558186-87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포트레이트
여러 연주자들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불새'에서부터 원시주의, 신교전주의, 무조음악을 거쳐 최만년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으로 다시 회귀한 작품이었던 '레퀴엠 칸타타'에 이르기까지 스트라빈스키가 걸어갔던 음악여정을 담은 음반. 봄의 제전, 병사의 이야기, 결혼, 오이디프스왕, 시편교향곡, 바이올린협주곡 등의 대표작들의 단편과 음악 컬럼니스트 데이비드 니스의 100페이지 가량의 아티클이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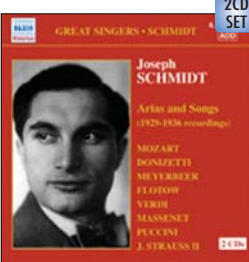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091
세고비아 1950년대 아메리칸 레코딩스
타레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
폰세: 소나타 3번 외
세고비아가 1950년대 미국에서 남긴 녹음들을 담은 세번째 음반. 폰세의 '전주곡' 발췌와 기타 소나타 3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비롯한 타레가의 유명 소품들, 너무나 유명한 알베니스의 '아스투리아스' 등의 인기 기타 레퍼트와들이 음반 가득 수록되었다.



8.111318-19
요제프 슈미트가 노래하는 아리아와 가곡들
모차르트, 도니제티, 플루토, 마이어베어, 마스네, 베르디, 푸치니, 차이코프스키 외
요제프 슈미트는 38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테너였지만, 짧은 기간 보여준 뛰어난 활약상은 그를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명테너의 한 사람으로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본 음반에는 그의 전성기였던 양대 대전 사이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녹음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남 몰래 흘리는 눈물', '꿈과 같이', '여자의 마음', '오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등의 유명 아리아들과 당시의 카바레 히트 송들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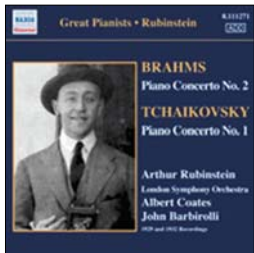
8.111268-70
마스네: 오페라 <마농>, 베를리오즈 <여름밤>
로스 앙헬레스, 앙리 르가이 외/
피라 오페라 코미크/
피에르 몽퇴
1955년에 녹음된 이 음반은 데로스 앙헬레스가 프랑스 오페라에도 정통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장 피에르 몽퇴가 오페라 코미크 국립 극장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음반에는 당대 파리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토박이 명가수를 하모니와 데로스 앙헬레스의 열창이 조화를 이룬 역사적인 명반이다. 같은 해 샤를르 원수와 호흡을 맞춘 베를리오즈의 '여름밤'이 함께 수록되었다.



8.111322-24
베르디: 운명의 힘 (1954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리처드 터커 외/ 라 스칼라/ 톨리오 세라핀
마리아 칼라스(돈나 레오노라)/ 리처드 터커(돈 알바로)/ 카를로 탈리아 부에(돈 카를로)/ 엘레나 니콜라이(프레치오실라)/ 니콜라 로사-레메니(구아르디노 신부)/ 레나토 카페케(멜리토네 수사)/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톨리오 세라핀 : 1954년 8월 녹음



8.111274
브람스: 교향곡 1번, 대학축전서곡,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 외
오토 클렘페러/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클렘페러하면 느린 템포가 먼저 연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만년의 레코딩들에 국한된다. 청장년 시절 그의 연주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박력, 그리고 쾌속의 질주를 자랑한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를 지휘한 브람스 교향곡 1번은 1927/8년의 녹음으로 젊은 클렘페러의 기백을 담은 열연이다. 비슷한 시기에 녹음된 대학축전서곡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1막 전주곡, 지크프리트의 자장가가 함께 수록되었다.



8.111271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2번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아르투르 루빈스타인(pf)/ 런던 심포니/ 알버트 코츠 & 존 바르비롤리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2번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베르트 코츠 1929년 10월 녹음/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존 바르비롤리 1932년 6월 녹음



8.111275
푸치니, 칠레아, 조르다노, 카탈리나, 보이토의 아리아들
마리아 칼라스(sop)/ 필하모니아/ 톨리오 세라핀 (1954년 녹음)
마농레스코 In quelle trine 나 비부인 Un bel di vedremo & Con onor muore 라 보엠 Si, mi chiamano Mimi & Donde lieta usci 수녀 안젤리카 Senza mamma 자니 스키키 O mio babbino tu 란 도트 Signore, ascolta & In questa reggia & Tu che di gel 아드리아나 르쿠베르 Ecco: Respiro & Poveri fiori 안드레아 세니에 La mamma morta 라 왈리 Ebben? 메피스토펠레 L'altra notte in f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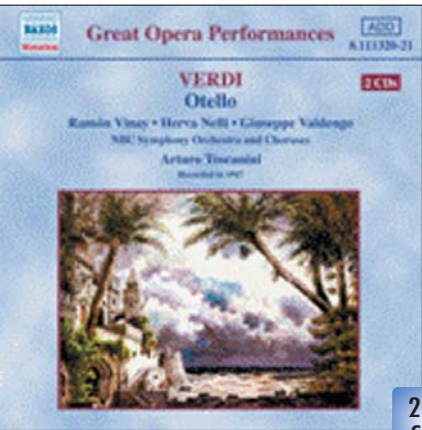
8.111280-81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파노 외/
라 스칼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마리아 칼라스(레오노라)/ 주제페 디 스테파노(만리코)/ 롤란도 파넬라이(루나백작)/ 페도라 바르비에리(아추체나)/ 니콜라 차리아(페란도)/ 레나토 에르콜라니(루이즈)/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 1956년 8월 녹음



8.111278-79
베르디:
가면무도회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파노,
티토 곱비 외/
라 스칼라/
안토니오 보토
마리아 칼라스(아멜리아)/ 주제페 디 스테파노(리카르도)/ 티토 곱비(레나토)/ 페도라 바르비에리(올리카)/ 에우제니아 라티(오스카)/ 실비오 마이오니카(사우엘)/ 니콜라 차리아(통)/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안토니오 보토 : 1956년 9월 녹음



8.111092
세고비아 1950년대 아메리칸 레코딩스
다울랜드, 쿠프랭, 라모, 스카를라티, 비세, 폰세, 무다라, 밀란, 나라바에스
세고비아의 50년대 미국 녹음 시리즈의 4번째 음반. 본 음반에서는 르네상스/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에도 열정적이었던 거장의 색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밀란과 나라바에스, 무다라와 같은 르네상스 스페인 작곡가들의 비후엘라 작품, 다울랜드의 류트 음악, 라모와 쿠프랭, 비세 등의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들의 류트 및 건반작품을 기타로 연주하였다.



8.111320-21
베르디: 오텔로 (1947년 음원)
라몬 비나이(오텔로)/ 아르투르 토스카니니/ NBC 심포니와 합창단
토스카니니가 1947년 RCA에서 녹음한 베르디의 오텔로는 지금까지도 동국 최고의 명연으로 꼽히는 역사적인 연주다. 역대 최고의 오텔로로 손꼽히는 칠레 출신의 드라마틱 테너 라몬 비나이의 전설적인 열연과 더불어 헤르바 델리의 지순한 데스테모나가 거장의 칼 같은 지휘와 함께 어우러졌다. NBC는 홍보를 위해 이 레코드를 방송했었는데, 본 음반은 바로 그 방송음원을 워드 마스틴이 훌륭히 복각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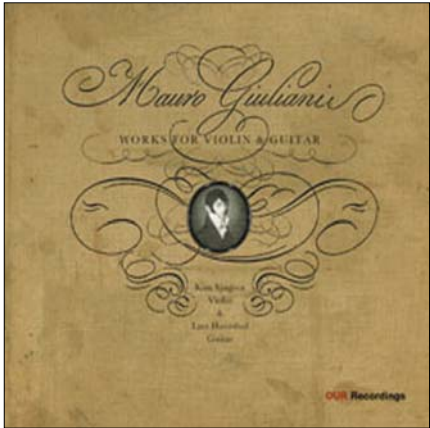
DACAPO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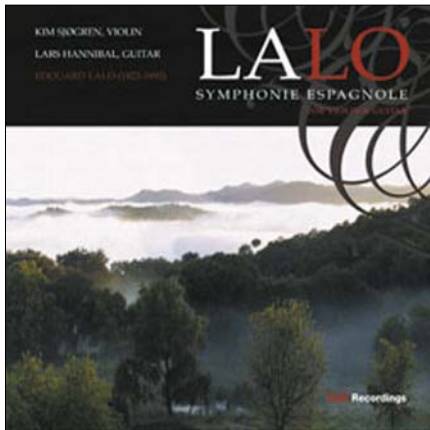
www.dacapo-records.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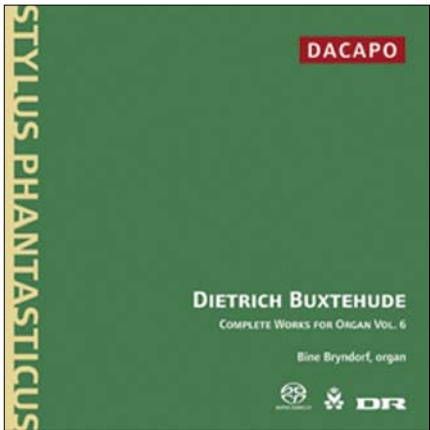
8.226902
〈JOURNEY〉(기타와 바이올린 이중주를 위한 작품들)
김 쇠그렌(vn) / 라스 한니발 (guitar)
파가니니나 줄리아니의 작품들을 통해 경험했다시피, 바이올린과 기타의 조합은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이끌어낸다. 두 악기의 절묘한 하모니를 위한 덴마크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았다. 크로스오버적인 미켈 보르의 〈Everything matters〉, 바로크 춤곡 모음곡을 연상케 하는 예르실트의 〈10개의 즉흥곡〉은 물론, 코렐과 홀름보에와 같은 유명 작곡가들의 오소독스한 작품들도 친근한 불임성을 보여준다.



8.226904
줄리아니: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외
김 쇠그렌(vn) / 라스 한니발(guitar)
마우로 줄리아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빈에서 활동했던 고전/낭만 전반기의 음악가다. 작곡가인 동시에 첼로와 기타의 명인이었으며, 특히 후자를 위해 매력적인 작품들을 200여 곡이나 남겼다. 기타 반주에 바이올린 또는 플루트가 독주를 담당할 수 있는 이중주가 22곡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 3곡의 중요작품들을 수록하였다. 기타와 바이올린이 다소곳이 주고 받는 사랑스런 선율이 음반전체를 가득 채운다.



8.226903
랄로: 스페인교향곡(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편곡) 외
김 쇠그렌(vn) / 라스 한니발(guitar)
바이올린과 기타 2중주로 감상하는 랄로의 스페인교향곡, 사라사테를 위해 완성되었던 이 작품은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콘서트 레퍼토리로 사랑받았던 걸작이다. 덴마크가 자랑하는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이 이 작품을 색다른 편성으로 편곡하였다. 두 악기의 아가자기한 협연을 통해 이 작품의 섬세한 매력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노르웨이 환상곡 역시 동일 편성으로 수록되었다.



6.220530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집 Vol.6 (Hybrid-SACD)
비네 브린도르프(org)
남독일의 파헬렐과 북독일의 북스테후데는 17세기 독일음악계를 양분했던 오르간의 거장들이었다. 특히 북스테후데는 청년 바흐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유명하다. 다카포의 북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시리즈의 6번째 음반인 이번 신보에는 푸가와 전주곡, 칸초나들이 수록되었다. 작곡가가 청년시절 슈나이더만을 사사한 장소였던 함부르크의 성 야코비 교회의 두 오르간(그랜드&포지티브)의 고아한 사운드가 일품이다

MARCO POLO

Marco Polo

www.naxos.com



8.225287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 Vol.11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바키아 신포니에타 칠리나
본 음반의 수록곡 몇 편은 1837/8년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펼쳤던 14개월 동안의 서유럽 순회공연 기간 중에 완성한 작품들이다. 혁명가요 '라 마르세이즈'를 인용한 '파리 왈츠', 영국 국가로 마무리되는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오마주', '브뤼셀 경마' 등이 바로 그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기차여행의 즐거움 왈츠', '이국적인 식물 왈츠', '연주회 불꽃 왈츠' 등등 제목부터 흥미진진한 여러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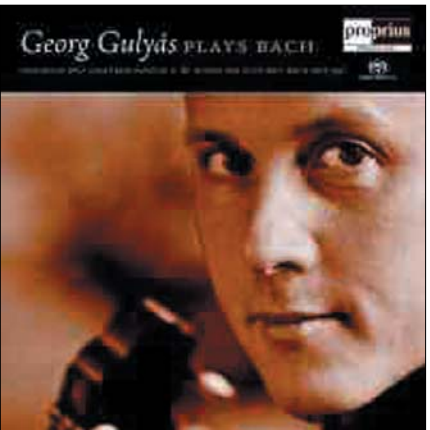


LPO-0031
터니지: Twice Through the Heart, Hidden Love Song, The Torn Fields
사라 코넬리(ms), 마틴 로버트슨(sax), 제랄드 핀리(bar)/마린 알습/런던 필하모닉
런던 필의 상주작곡가로 활동 중인 마크-안소니 터니지의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 3월 예정된 런던 필의 내한공연에서도 이 작곡가의 작품들을 접하게 될 예정이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하고 말았던 여인의 비극을 다룬 성악곡 'Twice through the heart', 1차대전 참상을 섬뜩한 음악으로 표현한 'The torn fields', 재즈기법을 가미한 독특한 소프라노색소폰협주곡인 'Hidden love song'을 수록하였다.

proprius

Proprius

www.propri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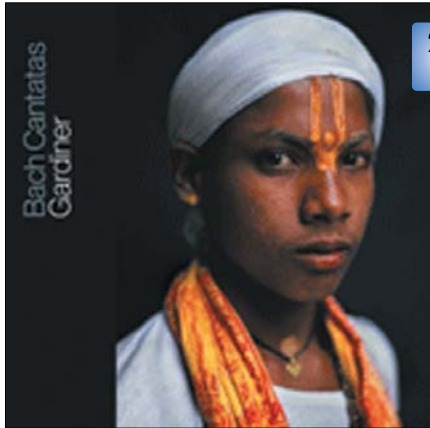
PRSACD2041
JS 바흐: 류트 모음곡 BWV996 & 997, 사콘느 BWV1004
게오르크 굴뤼아스(guitar) / Hybrid-SACD
스페인 작품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스웨덴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게오르크 굴뤼아스가 바흐의 류트 곡에 도전하였다. 류트 모음곡 BWV996과 997, 그리고 유명한 사콘느를 녹음한 것으로, 연주자의 정연한 연주와 프로프리우스의 우수한 녹음이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SA-CD.net에서 연주와 녹음 양쪽 모두에서 만점에 랭크되었으며, '바흐 애호가나 기타 애호가 양쪽 모두가 꼭 들어보아야 할 음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Soli Deo Gloria (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2CD SET

SDG 141

바흐 칸타타 순례 Vol. 3
삼위일체 후 4,5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꾸밈없는 마음 BWV24
영원한 사랑의 자비로운 마음이며 BWV185
소리쳐 부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BWV177
하나님은 나의 왕이도다 BWV71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리니 BWV77
주여, 깊은 심연에서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BWV131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자 BWV93

막달레나 코체나, 조안 룬(sop)/ 나탈리 스튀츠망, 윌리엄 타워즈(alt)/ 폴 애그뉴, 코비 판 렌스부르크(te)/ 니콜라스 테스테, 피터 하비(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삼위일체후 네번째 주일을 위한 세 편의 칸타타(BWV24, 177, 185)는 2000년 첼트넬 페스티벌 중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막달레나 코체나, 나탈리 스튀츠망, 폴 애그뉴 등의 정상급 가수들의 열창이 돋보이는 연주다. 삼위일체 후 다섯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은 청년 바흐가 한때 적을 두었던 도시인 뮐하우젠에서 녹음되었다. 4조의 별도의 기악그룹을 요구하는 바흐의 칸타타 중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인 BWV71 '하나님은 나의 왕'을 수록.



2CD SET

SDG 138

바흐 칸타타 순례 Vol.27
세속목요일을 위한 칸타타, 삼위일체주일을 위한 칸타타

브란덴부르크협주곡 3번, 열망하던 기쁨의 빛이며 BWV184
그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도다 BWV175
가장 큰 소망인 기쁨의 축제 BWV194
오 성스러운 세례 BWV165
그것은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BWV176
주 하나님이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BWV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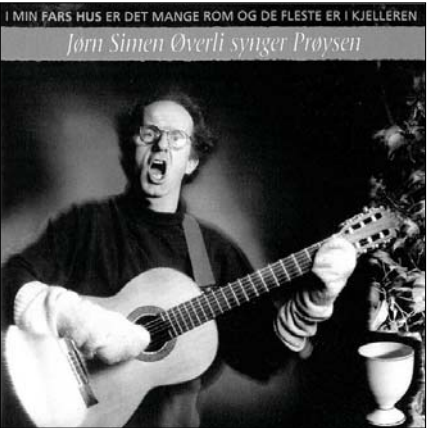
리사 라르손, 롯 홀튼(sop)/ 나탈리 스튀츠망, 다니엘 테일러(alt)/ 크리스토퍼 겐츠, 폴 애그뉴(te)/ 스티븐 로지스, 피터 하비(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존 엘리엇 가디너

세속목요일을 위한 2편이 칸타타를 담은 첫 CD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으로 시작된다. 가디너가 지휘하는 바흐의 순수기악곡을 감상할 수 있는 값진 기회다. BWV184는 과텐시절 작곡했던 세속칸타타를 개작한 작품으로, '라크메'의 꽃의 이중창을 연상시키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아름다운 이중창이 매력적이다. BWV165는 바이마르 시절의 작품이며, 프랑스 풍의 장엄한 서곡이 인상적인 BWV194와 다정다감하면서도 숭고한 느낌의 BWV129 등이 수록되었다.



KKV (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FXCD 113

온 지멘 어벨리가 노래하는 알프 프로이센
노르웨이 중요한 현대 예술가의 작품

러시아의 음유시인 브이쇼츠키의 음악을 힘차게 노래했고, 1900년대 중반 독일 음유시가를 해석한 음반까지 내놓았던 아티스트 온 지멘 어벨리의 새음반. 이 음반에서는 노르웨이의 작가이며 음악가인 알프 프로이센의 작품을 노래했다. 알프 프로이센은 20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아이콘 중의 하나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삶과 평탄치 못한 인생행로를 풍자적으로 노래한 일종의 음유시가들이 이어진다.



FXCD 320

마흐사 & 마리안 바흐다트: 페르시아 정원의 노래
매혹적인 옛 이란의 노래들

페르시아 즉 이란의 음악을 노래한 음반이다. 전통 페르시아 민요를 포함해 13세기, 14세기 옛 이란의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두 명의 이란 여가수가 찬찬하면서도 아시아 남서부의 독특한 이국적 취미로 가득한 노래들을 풀어놓는데, 즐거움을 위해 세상 모두를 버렸다는 '미나(와인 잔)'라는 곡부터, '나와 함께 가지 말아요', '천국의 정원에 핀 꽃', '틀립' 등 서구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동양정서가 귀와 마음을 매혹시킨다. 예쁜 재킷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FXCD 49

Skruk: 알렐루야즈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들며 북구의 눈보라처럼 쓸려오는 skruk 합창단과 Ytre Suloens 재즈 앙상블의 협연 실황. '흑인처럼 새하얀'이라는 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흑인영가> 해석자들은, 이베르 크레이베의 오르간과 함께, 노르웨이 순회 공연시 수많은 회심을 이끌어 내 신비와 환희의 증거물로 기록된다. 1984년 이후 눈길을 꼭꼭 밟고 걸어오는 장엄한 신神의 안부.



FXCD 113

Julius Winger: 사랑 그리고 또다른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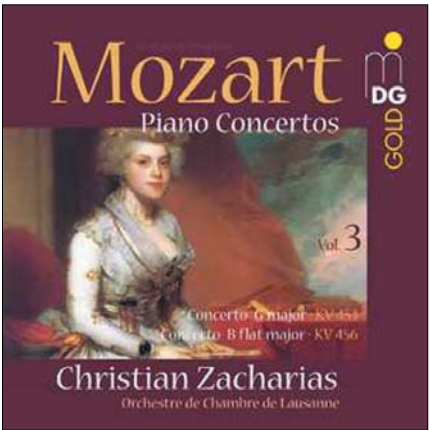
줄리어스 윈거는 노르웨이의 가수 가운데 돋보이는 영혼의 목소리를 지녔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안 가버렉 류의 색서폰과 돌아오지 못할 강을 흘러가는 피아노, 슬픈 저녁이었다가 명량한 아침이기도 한, 사랑의 처연한 속삭임들. 겨울을 나지 않은 어린 나무가 어찌 사무친 슬픔을 알겠는가. 윈거의 노래가 물결무늬가 되어 달는 가슴마다 사랑과 배반의 인생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

MD&G

www.md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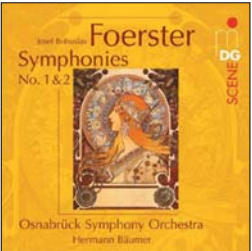


340 1488-2(Normal CD) / 940 1488-6(Hybrid-SACD)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7번 & 18번

크리스티안 차하리야스(피아노&지휘)/ 로잔느 체임버 오케스트라

2007년 미렘 클래식에서 올해의 음악가상을 수상했던 독일의 중견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차하리야스의 최신보. 그가 진행중인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의 3번째 음반이다. 수록된 두 편의 협주곡은 모두 여성을 위해 작곡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작곡가의 다른 어떤 협주곡들보다도 한층 아름다운 선율미와 깔끔한 구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이다. 제네바 콩쿠르와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우승자이자, 특유의 서정적이고도 깔끔한 터치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하리야스의 미덕이 한결 돋보이는 음반.



632 1491-2

포에르스터: 교향곡 1번 & 2번

헤르만 배우머/ 오즈나브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음반을 들어본다면 요제프 포에르스터라는 작곡가가 왜 여지껏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는 지 궁금할 것이다. 드보르작과 수크의 중간 세대에 위치하는 이 체코의 작곡가는 현재 레코딩계의 가장 중요한 재발견의 하나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음악은 우아한 멜랑콜리와 불꽃튀는 열정을 겸비하고 있으며, 고향 보헤미아의 정서 역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헤르만 배우머와 오즈나브뤽 심포니는 이 작곡가의 관련악곡 전곡을 녹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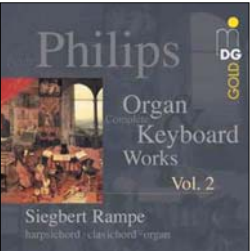


643 1424-2

보니스: 피아노사중주 1,2번 & 저녁과 아침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

자신이 여성임을 숨기기 위해 멜보니스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멜라니 보니스는 19/20세기 전환기 프랑스 문화계의 '아름다운 시대' (Belle Epoque)의 대표적 인 여성작곡가다. 생상은 그의 피아노사중주를 들은 뒤 '여성의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완벽한 작품'이라고 평가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한동안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모차르트 사중주단의 우수한 연주가 이를 새롭게 부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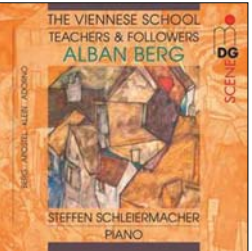


341 1435-2

필립스: 오르간과 건반을 위한 작품들 Vol.2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오르간)

솔라이어마이어가 진행중인 신연주와 연구 양면 모두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걸출한 건반연주자가 역사적인 고악기들을 동원하여 16/7세기 영국 건반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1425년에 제작된 성 안드레아 교회의 오르간, 1637년 제작된 루커스 하프시코드, 17세기 초에 완성된 성 슈테판 교회 오르간, 17세기 남독일 모델의 복제품 클라비코드를 녹음에 활용하였다.



613 1475-2

신 빈 악파의 피아노음악(베르크, 아도르노, 클라인, 아포스텔)

슈테판 솔라이어마허(피아노)

솔라이어마이어가 진행중인 신연주와 연구 양면 모두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걸출한 건반연주자가 역사적인 고악기들을 동원하여 16/7세기 영국 건반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1425년에 제작된 성 안드레아 교회의 오르간, 1637년 제작된 루커스 하프시코드, 17세기 초에 완성된 성 슈테판 교회 오르간, 17세기 남독일 모델의 복제품 클라비코드를 녹음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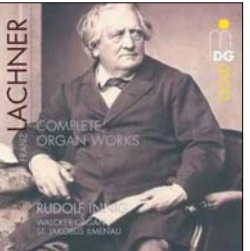


316 1291-2

뒤프레: 오르간 작품집 Vol.9

벤 판 오스텐(파리 생테티앵 뒤몽 오르간)

클라식 호이테, 그라모폰, 디아파송, 레퍼트와 등의 유수의 음반전문지들을 통해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진행 중인 오스텐의 뒤프레 에디션의 9번째 음반. 20세기 프랑스 오르간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뒤프레가 만년에 남긴 가장 중요한 작품인 24 invention Op.50을 수록하였다. 파리 생테티앵-뒤몽 교회의 그랜드 오르간의 장엄한 음향은 바흐에 대한 경의를 담은 이 위대한 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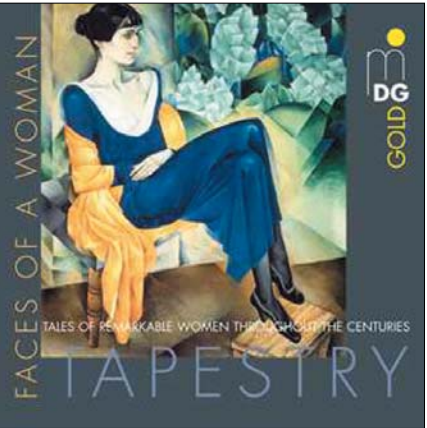


317 1487-2

라흐너: 오르간 작품전집

루돌프 인니히(일메나우 성 야코부스 교회 오르간)

프란츠 라흐너는 폰 뵐로우에 앞서서 독일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작곡가로도 오페라, 교향곡, 실내악, 리트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들은 완전히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3편의 오르간 소나타들은 독일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오르간 레퍼토리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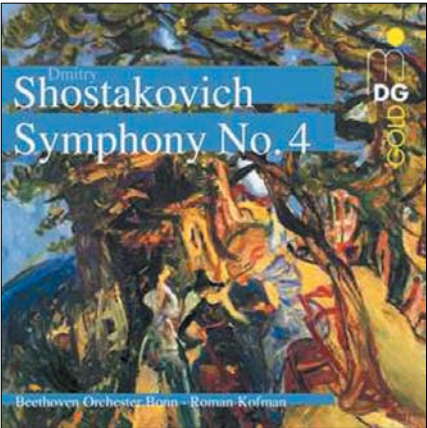


344 1468-2

여인의 얼굴들(수세기에 걸친 걸출한 여인들의 이야기)

태피스트리

아일랜드의 여자해적, 포르투갈의 여왕, 프랑스 백작부인, 유대 미국인 사회주의자, 성모, 그리고 성 우르술라와 함께 순교한 11,000명의 동정녀들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여러 여성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독특한 음반. 9세기 마우루스의 찬가 '오소서 성령이여'에서 현존 작곡가 크리거의 '자장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공간의 음악들을 수록하였다. 어니니머스 4를 연상케 하는 여성 앙상블 태피스트리의 수정과도 같은 투명한 음성이 수록곡들의 신비감을 한층 드높인다.



337 1208-2(Normal CD) / 937 1208-6(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

로만 코프만(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이 진행중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8번째 음반.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으로 당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작곡가는 교향곡 4번의 초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작품은 스탈린이 사망할때까지 금단의 작품으로 남았다. 코프만은 이 작품의 음울하고 냉소적인 기운을 충실히 재현해내었다. MDG의 뛰어난 녹음이 작품의 스펙터클한 특징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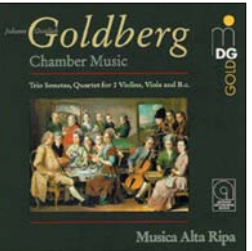
345 1476-2

베토벤: 하모니무지크

(에그몬트, 아테네의 폐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마알로트 콰텟

마알로트 콰텟의 클라리넷 주자 귀도 세퍼는 편곡자로서의 재능 또한 출중하다. 그의 드보르작 편곡 음반은 예코 클래식 상을 수상했고, 피아솔라 음반 역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그가 베토벤의 무대음악에 도전하였다. 지금은 서곡만 기억되는 '에그몬트'지만 나머지 극부수 음악들 역시 베토벤의 재능이 깃든 뛰어난 소품들이다. '아테네의 폐허'의 유명한 터키 행진곡을 다섯 관악기의 매력적인 사운드로 만나는 즐거움도 크다. 베토벤의 유일한 발레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역시 뛰어난 편곡을 통해 새로운 색채로 거듭났다.



309 0709-2

골드베르크:

실내악과 건반작품집

무지카 알타 리파

파파 하이든의 제자였던 이그나츠 스승이 남긴 불세출의 변주곡 덕분에 지금까지도 친근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골드베르크이지만, 실제 작곡가로서 그의 작품은 그리 익숙하지 않다. 스승의 품을 떠나 단치히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 작곡가는 실내악이나 건반분야에서 전고전시대의 시대적 특징에 충실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트리오 소나타들은 고전시대의 현악사중주를 예견케 하는 정갈한 양식미를 보여준다.



301 0460-2

플레엘: 윈드 세레나데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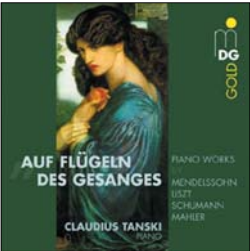
파파 하이든의 제자였던 이그나츠 플레엘은 특히 실내악 분야에서 스승 못지 않은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본 음반에 수록된 각각 2편의 목관 8중주와 6중주를 위한 세레나데들은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리더인 클레커가 재발견한 작품들로 이 음반이 이들 작품들의 최초 녹음에 해당한다. 이 세레나데들을 모차르트의 이름으로 출판하더라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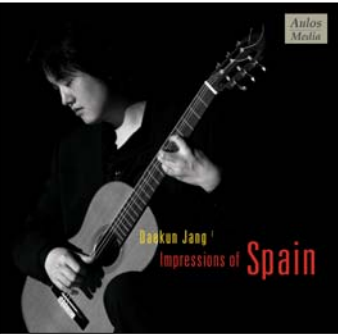
605 1477-2(Normal CD) / 905 1477-6(Hybrid-SACD)
피서: 관현악모음곡 1번, 미사 대천사 미카엘, 대위법의 미사
렘고 마리아 칸토라이 합창단/ 라이너 요하네스 홀부르크(지휘)/
헨델스 컴파니
요한 피서는 바흐보다 한 세대 앞서서 활동했던 보헤미아 출신의 작곡가다. 바흐 전기의 저자인 포르켈은 피서를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지금 그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의 관현악모음곡 1번은 전형적인 프랑스 풍 춤곡 모음곡으로 당대의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에 비해 타악기를 적극 활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다. 3대의 트럼본이 장엄함을 한층 강조하는 미사 대천사 미카엘과 절기에 따라 각각 다른 키리에를 교체하게끔 고안된 대위법의 미사를 함께 수록하였다.



320 1474-2
코랄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여'에 의한 오르간작품들
엘리자베트 롤로프(예루살렘 순천교회 오르간)
본 음반에는 독일 루터교회의 중요 한 코랄의 하나였던 'Jerusalem, du hochgebaute Stadt'를 토대로 낭만시대 작곡가들이 완성한오르간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레거의 코랄 플렐류드, 카르크-엘러트의 토카타, 호이어의 서주, 변주와 푸가 3작품 모두가 이 코랄을 토대로 완성한 작품이다. 멘델스존의 소나타 1번, 리스트의 바흐 이름에 의한 전주곡과 푸가를 함께 수록하였다.



912 1489-6(Hybrid-SACD)
노래의 날개 위에 (피아노로 연주하는 낭만가곡들)
클라우디우스 탄스키(피아노)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리사이틀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리트들을 연주곡으로 편곡 연주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리스트다. 본 음반에는 리스트가 편곡한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와 자신의 가곡 '로렐라이', 그리고 연주자 탄스키가 직접 편곡한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피아노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슈만의 대표적인 낭만 레퍼토리인 환상곡 op.17도 함께 수록되었다.



AMC2-090

| 장대건 Impressions of Spain 수록곡 |

FRANCISCO TÁRREGA

- 프란시스코 타레가
1. Six Preludes 여섯 개의 전주곡
 2. Alborada 알보라다

REGINO SAINZ DE LA MAZA

- 레히노 사인스 델라 마사
3. Rondeña 론데냐
 4. Petenera 페테네라
 5. Zapateado 사파테아도

ISAAC ALBÉNIZ

- 이삭 알베니스
6. Mallorca Op. 202 * 마요르카
 7. Asturias (from Suite española Op. 47) * 아스투리아스
- *Arr. Daekun Jang

MANUEL DE FALLA

- 마누엘 데 파야
8. Homenaje 오메나헤

ENRIQUE GRANADOS

- 엔리케 그라나도스
- From 12 Danzas españolas Op.37
9. No. 5 Andaluza 안달루사
 10. No. 10 Danza Triste 단사 트리스테

EMILIO PUJOL

- 에밀리오 푸졸
11. Barcarolle 바르카롤로
 12. Salve 살베
 13. Scottisch Madrilène 스코티쉬 마드릴렌느
 14. Pequeña Romanza 페케냐 로만사

JOAQUÍN TURINA

- 호아킨 투리나
- Sonata op. 61 소나타
15. I. Allegro 알레그로
 16. II. Andante 안단테
 17. III. Allegro vivo 알레그로 비보



루이스 밀란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를 두루 석권하고 기타의 본고장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찬사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두 번째 음반이 발매된다. 2006년 11월말에 발매된 1집 음반 "기타의 노래들(Songs of The Guitar)"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권위를 자랑하는 해외 클래식 기타잡지인 영국의 클래식기타(Classical Guitar)와 일본 현대기타(Gendai Guitar)로 부터 격찬을 받았던 기타리스트 장대건이 두 번째 음반에서 선택한 주제는 스페인이다.

스페인 음악은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낭만적인 멜로디로 인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 측면에서는 스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스페인의 음악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기타리스트 장대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 스페인으로 유학을 결심한 후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생활하면서 20여 차례의 스페인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고 스페인 현지 기타리스트 사이에서도 스페인 사람보다 더 스페인 음악을 잘 표현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젊은 음악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페인기타의 대표적인 작곡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2집 음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집 음반에서 장대건은 스페인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타레가,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파야, 투리나, 뿌졸의 작품을 통해 스페인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스페인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파야의 <드뷔시 찬가>와 투리나의 유일한 기타 작품인 <기타 소나타>에서는 장대건의 진지하면 서면도 비루투오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알베니스와 그라나도스의 작품에서는 스페인 특유의 리듬과 감성에 충실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녹음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인스 데라 마사의 작품에서는 플라멩코 풍의 정열과 리듬감을 심분 살려 연주하였다. 타레가 및 뿌졸의 곡은 처음 들어도 누구나가 친근감을 느낄 만한 짧으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소품으로 장대건 만이 가진 특유의 감성적인 어법으로 노래하여 주고 있다. 특히 원곡이 피아노곡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연주로 더 유명한 알베니스의 "아수투리아스"와 "마요르카"는 장대건 자신의 편곡으로 연주하고 있어 연주자로서 모습뿐이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장대건의 모습을 심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대건의 2집 음반 작업에는 제50회 그래미상 클래식 부문 녹음상을 수상한 황병준씨가 참여하여 녹음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악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음색을 디테일하게 잡아내어 음반의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New Releases | 클래식과 뉴 에이지 태교음악 [축복의 나무]



AMC2-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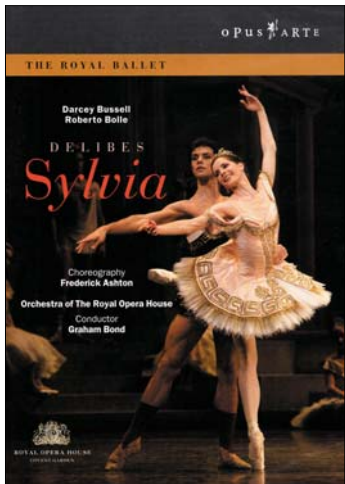
사랑스런 내 아이는 축복의 나무

'사랑에서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로망 롤랑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는가! 사랑하고 있는 두 대상한테 왜 어떤 이유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무문에 불과하다. 사랑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종류를 에로스, 아가페, 플라토닉 러브 등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급수가 어떨든 모든 사랑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아마 엄마가 자신의 분신인 아가에게 쏟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을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랑에 견줄만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 외에는 없으리라. 그것 역시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태교다. 태교는 말하자면 엄마의 입으로, 엄마의 머리로, 엄마의 가슴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여 아이를 축복하게 되는 고귀한 행위인 것이다. 아이는 엄마가 머리와 가슴으로 주는 축복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본 태교 음반은 이런 컨셉트로 제목을 '축복의 나무'로 정했다. 좋은 음악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다. 엄마와 아가는 일심동체이지만, 아가는 엄마를 통해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런 부담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옥같은 클래식 음악들을 고르고 그중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와 닿는 음악을 다시 골랐다. 태어날 아가를 위해 엄마가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정서적 선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같은 제목의 뉴 에이지 음반도 보너스로 마련했다. 이 음반에서 '오라 은빛 달이여' 한 곡은 이미 많이 유명해졌지만, 이 음반에 실린 곡들이 대부분 편안한 환상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엄마와 아가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믿는다.

들리브: 실비아

영국이 사랑하는 국민 발레리나, 다르시 버셀의 매력에 빠져들다!

그리스 신화의 요정 실비아와 목동 아민타가 주인공인 목가적 발레 〈실비아〉는 〈코펠리아〉를 작곡한 레오 들리브의 음악을 사용하여 1876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차이코프스키가 높이 평가했다는 걸출한 음악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대본과 평범한 안무 탓에 걸작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52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에 의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애쉬튼의 〈실비아〉는 상업용 영상물이 없었는데, 그가 평생을 바친 로열 발레의 2005년 최신 실황으로 발매되었다. 실비아 역에 영국의 국민적 발레리나 다르시 버셀이 나선 점은 흥미를 배가시킨다. 버셀은 절정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로열 발레에서 은퇴한 대스타다. 앞으로는 보다 자유로운 신분으로 공연계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이 영상물에 구현된 우아한 자태, 어려운 동작을 편안하게 처리하는 테크닉과 풍부한 연륜은 왜 그녀가 진정한 스타인지 확인하게 한다. 상대역인 로베르토 볼레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 소속의 미남 발레리노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열 발레 창단 75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진 공연답게 아름답고 호화 찬란한 무대와 의상은 물론 화질과 음질도 최고 수준이다.



OpusArte DVD OA 0986D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21세기 대표 이졸데, 니나 슈템메의 열창과 자궁같은 무대의 결합

스웨덴 소프라노 니나 슈템메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연주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작품을 가려가며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러더니 사십대에 접어들면서 어느새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야나체크 등 근대 오페라에서 전세계 모든 일류 극장이 출연을 요청하는, 그러나 쉽게 섭외되지 않는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슈템메는 우아한 자태, 깊고 투명한 음색, 지적인 표현력을 모두 갖춘 대가수로서 최근에는 베르디 오페라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와 무대장치가 롤란드 에실리만은 4시간에 이르는 이 기나긴 오페라의 무대를 자궁, 혹은 새장을 연상시키는 타원형의 검은 색 구조물로 고정시켰다. 원초적 공간, 폐쇄적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섬세한 동선과 연기, 조명의 힘으로 집중력을 배가시켰다. 렌호프는 특히 이 작품을 '빛의 드라마'로 정의하고 있다. 덕분에 음악의 비중이 더욱 힘을 얻었다는 것이 이 프로덕션의 특징이다. 2007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최신 실황. 체코의 지리 벨로라베크이 지휘를 맡았고 드라마틱 테너로 변신한 로버트 갬빌(트리스탄)을 비롯하여 보 스코부스(쿠르베날), 르네 파페(마르케 왕) 등 한 자리에 모으기 힘든 초호화 출연진이 나선 화제의 공연이다.



OpusArte DVD OA 0988D

이고르 스트라빈스카: 탕아 행각

18세기 런던의 타락상을 1950년대 라스베이거스로 옮긴 경이적인 무대

〈탕아 행각〉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1951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한 현대 오페라의 걸작이다. 18세기 영국의 풍속화가 윌리엄 호거스의 그림에서 착상한 영어 대본을 사용했으며 원작의 무대는 18세기 영국의 런던이다. 본 영상물은 2007년 4월, 벨기에의 왕립극장인 브뤼셀의 모네극장 실황을 담았다. 죄로 가득한 18세기의 런던은 TV 방송의 초기 시절인 1950년대의 라스베이거스의 이미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시각적으로 워낙 인상적인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인기가 높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로베르 리바주가 연출을 맡았고, 칼 필리온의 무대장치와 프랑수아 바르보의 의상은 놀라울 정도로 작품과 잘 어울린다. 여기에 모네 가족장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본 출신의 오노 가즈시가 스트라빈스키 음악에 극적인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젊은 가수들의 생생한 연기와 노래도 훌륭하지만 특히 무대 구성이란 측면에서는 역사상 최고 영상물의 하나로 꼽아도 좋을 만한 소중한 자료다.



OpusArte DVD OA 0991D

무소르그스키: 호반시치나

러시아 민족주의 오페라를 대표하는 걸작

〈호반시치나〉는 〈보리스 고두노프〉에 필적할 정도의 웅대한 스케일과 진한 러시아의 정취를 담은 무소르그스키의 미완성 걸작 오페라다. 1872년부터 작곡이 시작되었으나, 1881년 작곡가가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미완성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완성한 버전이 1886년에 초연됨으로써 이 위대한 오페라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오페라는 피터대제의 서구화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복고신앙파와 근위대의 반란을 내용으로 한다. 이반 호반스키가 이끌던 반란세력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군에 진압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고, 마침내 집단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오페라는 마무리된다. 본 영상물은 2007년 5월 바르셀로나 리세우대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원작을 다소 왜곡했던 림스키코르사코프 버전 대신 쇼스타코비치가 완성한 버전을 사용한 공연으로, 러시아 본토박이 가수들의 목직한 절창과 연출가 스테인 빙에의 사실주의적 인 무대가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를 만나게 된다.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캐스트 갤러리, 지휘자 미카엘 보더의 인터뷰 등이 부록으로 제공된다.



OpusArte DVD OA 0989D



TDK DVD

www.tdk-music.com

2008년 클래식 TDK 하이라이트

최신 DVD의 오페라, 콘서트, 발레의 명장면 엄선

2008년 전반기 출시 TDK DVD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은 것. 인기 높은 DVD의 핵심 장면을 1시간 40분가량 무려 24개 트랙에 담았다. 아르헤리치가 등장하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시작으로, 로시니의 '탄크레디', '알제리의 이탈리아인'의 장면, 푸치니 '토스카' 등 이탈리아 오페라 타이틀의 베스트 장면들이 많다. 도로테아 뢰슈만이 파미나로 나와 열창하는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모차르트 '마술피리'는 특별히 감동적이다. 베르디 레퀴엠 중 '진노의 날'을 연주하는 주빈 메타,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돈 카를로스의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서는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도 볼 수 있다.

[수록곡 소개]

1. Prokofiev_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o.1 in D flat major: Allegro brioso
2. Rossini_ Tancredi: Di tanti palpiti
3. Puccini_ Tosca: Ah, quegli occhi
4. Rossini_ L'italiana in Algeri: Va sossopra il mio cervello
5. Minkus_ La Bayadère: Variation: Solor
6. Tchaikovsky_ Swan Lake: Spanish dance
7. Haydn_ Die Schöpfung: Nun beut die Flur das frische Grün
8. Donizetti_ Don Pasquale: Io? Io? Son tradito, beffeggiato
9. Rossini_ La Cenerentola: Del Baron le figlie io chiedo
10. Puccini_ Il trittico - Gianni Schicchi: O mio babbino caro
11. Mozart_ Die Zauberflöte: Bei Männern, welche Liebe fühlen
12. Mozart_ Die Zauberflöte für Kinder: Pa-Papagena! - Pa-Papageno!
13. Mendelssohn / Balanchine_ A Midsummer Night's Dream: Notturmo
14. Tchaikovsky_ Pique Dame: Prosti, nebesnoe sozdanye
15. Verdi_ Simon Boccanegra: Piango, perché mi parla
16. Verdi_ Messa da Requiem: Dies irae - Tuba mirum
17. Verdi_ Macbeth: Salve, o re! - Si colmi il calice
18. Verdi_ Falstaff: Facciamo il parentado
19. Prokofiev_ L'Amour des trois oranges: Chère orange!
20. Puccini_ Turandot: Chi pose tanta forza nel tuo cuore?
21. Janáček_ Jenufa: Zdrávas královno
22. Poulenc_ Dialogues des Carmélites: Ainsi, chaque prière
23. Verdi_ Don Carlos: Fontainebleau! Foret immense et solitaire!
Je l'ai vue, et dans son sourire
24. R.Strauss_ Die Frau ohne Schatten: Nun will ich jubeln
Vater, dir drohet nichts

- 2008년 TDK 카탈로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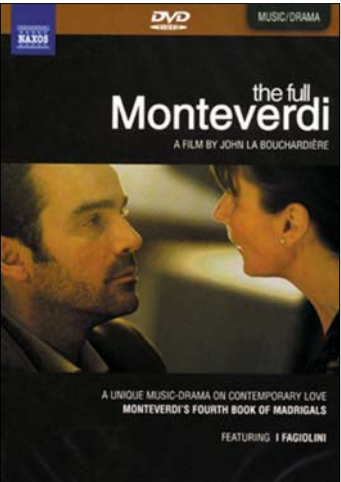
Naxos DVD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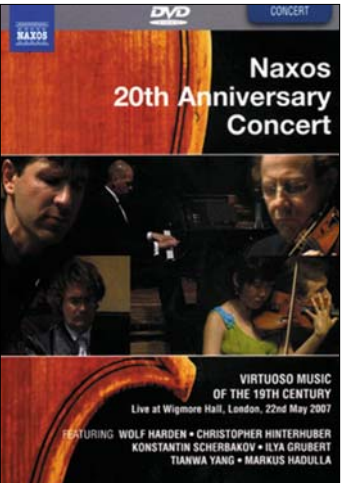
이 파지올리니가 노래하는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4권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

존 라 부사르디에르의 음악필름 <The Full Monteverdi>는 16/7세기 몬테베르디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던 이성애에 관한 애증의 다양한 감성이 현대의 산업사회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획기적인 영상물은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4권의 노래들을 현대의 일상사 안에 접목시켜 놓았다. 영국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 라 부사르디에르와 정상급 아카펠라 보컬 앙상블인 이 파지올리니의 긴밀한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한 이 음악드라마는 유럽 각국의 예술전문채널을 통해 방영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링컨 센터 무대 위에서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파지올리니의 멤버와 전문연극배우가 한명씩 짝지어져 만들어진 여섯 커플이 이 색다른 드라마를 이끌어간다. 이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리얼한 연기는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생생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NAXOS DVD 2.11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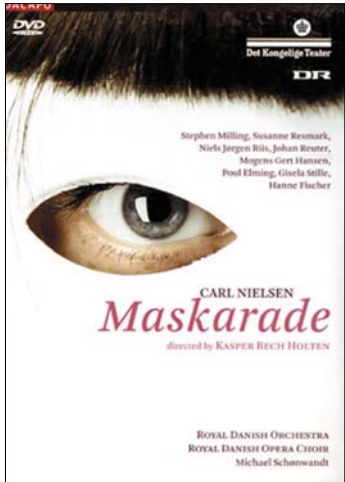


NAXOS DVD 2.110227

낙소스 창립 20주년 기념 콘서트

낙소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비르투오조들의 화려한 무대

클래식 음반 산업의 공룡으로 급성장해버린 낙소스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심장한 축하 연주회가 2007년 5월 22일 영국의 유서 깊은 실내악의 전당인 위그모어홀에서 펼쳐졌다. 본 DVD는 바로 그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현재 낙소스의 간판급 연주자로 맹활약 중인 4명의 피아니스트와 2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19세기 대표적인 비르투오조출신 작곡가들의 화려한 쇼피스들로 연주를 장식하였다. 리스트 편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집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세르바코프가 리스트의 '위로 3번'과 '스페인 랩소디'를 연주하였고, 레오니드 코간의 제자이자 1978년 차이코프스키 우승자인 일라 그루베르트가 에른스트의 '엘레지'와 '로시니 선율에 의한 환상곡'을 화려하게 들려준다. 트리오 폰테나이의 창립멤버이자 최근 솔리스트로도 맹활약 중인 볼프 하덴은 부조니의 작품에서 자신의 화려한 기교를 맘껏 뽐내며, 중국의 신에 타인과 양이 연주하는 사라사테의 바이올린 소품들 역시 눈부시다. 라이프치히 바흐 콩쿠르와 빈 베토벤 콩쿠르 입상자인 오스트리아의 기대주 크리스토퍼 힌터후버는 베토벤의 애제자이자 당대의 명 피아니스트였던 페르디난트 리스의 피아노곡 '실러의 시 체념에 대한 환상곡'으로 이 특별한 무대를 마무리하였다.



Dacapo DVD 2.110407

닐센: 가면무도회

스테판 밀링(예로니무스)/ 닐스 외르겐 리스(레안데르)/ 기셀라 스틸레(레오노라)/
포울 엘밍(레오나르드)/ 덴마크 왕립 오페라 관현악단과 합창단/ 미카엘 쇤반트

본토박이들이 신명나게 펼쳐가는 덴마크의 국보급 오페라

〈가면무도회〉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카를 닐센이 루드비히 홀베르크의 코미디에 기초한 빌헬름 안데르센의 리브레토를 토대로 완성한 3막 오페라로 1906년 코펜하겐의 왕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원작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닐센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초연 이후 초연 직후부터 복구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의 하나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서곡과 3막에 삽입된 발레 ‘숫병아리의 춤’은 독립적인 콘서트 레퍼토리로도 즐겨 연주된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에서의 공연실황을 옮긴 것으로, 세계적인 연출가 카스페르 베크 홀텐의 재기발랄한 연출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이자 닐센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한 미카엘 쇤반트의 탁월한 곡 해석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출가 홀텐은 완고하고 권이적인 구세대를 상징하는 예로니무스와 기성체제에 반항하는 신세대들의 상징인 레안데르의 갈등을 가면무도회를 매개로 펼쳐지는 연인들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을 너무나 평범한 현대의 일상사 속으로 절묘하게 접목시켜 놓았으며, 팬티마임과 아크로바틱, 그리고 기발한 무대장치들을 적극 활용한 무대연출 역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오페라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과 제작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보너스 영상으로 제공된다.

[보충자료]

○ 오페라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안데르와 레오노라는 가면무도회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레안데르의 아버지 예로니무스는 자신의 아들을 이웃의 딸과 약혼시키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 레안데르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부자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와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연이어 등장하지만, 중국에 가서는 자신의 정혼 대상자가 바로 무도회에서 만났던 레오노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모든 갈등은 해결되고 해피엔딩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 카를 닐센(1865~1931)은 핀란드의 시벨리우스나 노르웨이의 그리그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를 상징하는 음악계의 큰 이름이다. 여섯 편의 교향곡과 각각 바이올린, 플루트, 그리고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들이 유명하며, 그가 남긴 두 편의 오페라(가면무도회, 사울과 다비드)와 극부수음악 ‘알라딘’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연출가 카스파르 베크 홀텐은 덴마크 출신의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다. 2006년 불과 33세의 나이로 덴마크 왕립오페라의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화제를 모았고,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을 성공적으로 연출해냄으로써 유럽 오페라 무대의 새로운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The Christopher Nupen Films

www.allegrofilms.com



Allegro DVD A08CN D

이착 필만: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 장애틀을 딛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자리에 올랐던 이착 필만의 삶과 연주세계 조명
– 파가니니와 비에니아프스키의 카프리스, 사라사테의 타란텔라,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흥미로운 레퍼토리가 대거 수록

인기 높았던 재클린 듀프레 영상물에 이어 크리스토퍼 누펜이 새로 내놓은 이착 필만 DVD. 네 살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을 풍미하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던 필만의 모든 것을 담아놓았다. 그를 떠올리면 굵디고운 톤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불가사의한 기교에 주목하게 되지만, 영상물은 그 외에 거장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주력한다. 파가니니와 비에니아프스키의 카프리스, 사라사테의 타란텔라,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등 기교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레퍼토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독특한 예술적 직관과 필름제작자로서의 재능, 음악에 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든 필름의 주인공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주가의 삶과 예술을 깊이 있게 통찰해보여주며 음악 필름의 새로운 지평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누펜이 재클린 듀프레에 이어 이번에는 이착 필만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물을 내놓았다. 세 살이 지난 후부터 바이올린 소리에 반했지만, 네 살에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핸디캡을 안고도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이착 필만. 1945년생이니 그도 이제 63세가 되었는데, 현재 살아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최고의 거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시대 바이올린 연주계의 거목이다. 정경화가 줄리아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반 갈라미언 교수의 애 제자였던 이착 필만이 이미 고전, 낭만파 거장들의 대 협주곡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 속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다. 그의 기교적 완성이나 음악적 깊이는 때때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랍다. 다른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물에서도 현을 짚을 때 손가락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지도 바로 연주에 돌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영상물은 우선 그의 바이올린 다루는 솜씨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달관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바흐의 가보트를 위시하여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비에니아프스키의 카프리스, 사라사테의 타란텔라,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등 빼어난 기교를 확인할 수 있는 레퍼토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린 하렐과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포함하여, 핀커스 주커만, 브루노 카니노, 초랑린, 로런스 포스터 등 그의 필름에 출연하는 음악가들도 적지 않다. 주커만과 함께 초절기교를 선보이는 비에니아프스키의 작품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인상이 좋은 아내 토비 필만, 그리고 아이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여행하는 장면 등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따스한 앵글로 잡았다. BBC 라디오 3의 리사이틀도 인상적이다. 바흐의 E장조 파르티타의 전주곡을 눈을 거의 감고 입을 오물거리며 연주하는 모습은 그렇게 난곡을 연주하는 사람 같지 않다. D단조 파르티타 연주에서는 역시 사꾼이 압권이다. 그가 EMI에 남긴 최고의 명연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음반을 꺼내 들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 누펜의 필름이 항상 그렇듯이 영상물에 부족함이나 아쉬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정보를 담았다. 그가 내놓은 필름은 영상으로 된 최고의 연주가 전거물이다. BBC텔레비전 음악 예술국장인 리처드 서머셋-워드는 알레그로의 이 영상물을 ‘수년간 BBC텔레비전에서 방영한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음악 프로그램에 속한다’며 강력 추천했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Dynamic DVD

www.dynam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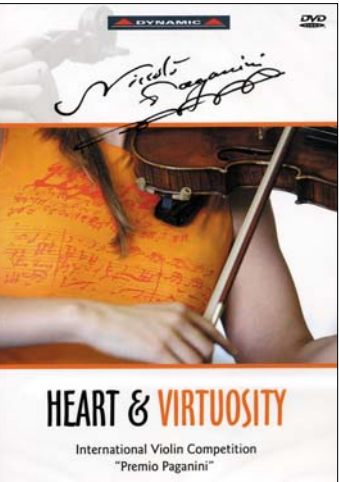
헬프 본 윌리엄즈의 생애

'종달새의 비상'을 작곡한 랠프 본 윌리엄즈의 모든 것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던 '종달새의 비상'을 작곡한 랠프 본 윌리엄즈(1872~1958)는 헨리 퍼셀 이후 대작곡가의 명맥이 끊겼던 영국 음악계의 자존심을 열거, 딜리어스, 홀스트 등과 함께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 특히 옛 영국 음악과 민요에서 창작의 원천을 찾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영국 작곡가로 불린다. 우리에게 친숙한 '푸른 옷소매 환상곡', '토마스 텔리스 환상곡' 등도 모두 옛 영국 음악에 찾아낸 선율을 기초로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소품을 특기로 한 작곡가가 아니다. 베토벤처럼 9개의 교향곡을 남긴 영국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이기도 하다. 랠프 본 윌리엄즈가 2008년에 타계 50주년을 맞이한다. 이 영상물은 위대한 작곡가이자 사회사업가로도 많은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의 삶의 궤적을 2시간 30분 동안 치밀하게 탐구한 다큐멘터리다. 모든 챕터를 대표작 소개는 물론 그의 미망인을 위시한 클래식 음악계의 중요 인물과의 인터뷰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혀 지루함 없이 흥미진진하게 쫓아갈 수 있다. 음악과 무용 관련 다큐멘터리의 대표적 거장인 토니 팔머가 감독하고 편집했다.



TPDVD 106



Dynamic DVD 33539

Heart & Virtuosity

2006년 51회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의 생생한 뒷이야기들.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독특한 내용의 영상물이다. 본 DVD는 2006년 9-10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펼쳐졌던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의 구석구석을 흥미진진하게 훑어나가고 있다.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억되는 파가니니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제노바에서 펼쳐지는 이 콩쿠르는 브뤼셀의 리즈 콩쿠르나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버금가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 참석자들의 도착과정부터 예선과 세미파이널, 최종 결선, 마침내 우승자를 뽑는 과정까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이 해에는 무려 3명의 한국 연주자(이유라, 이보경, 추현주)들이 최종결선에 진출하였고 본 영상물에도 이 세 사람이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비록 이유라가 2위를 수상하는데 그쳤지만, 이들 젊은 유망주들의 뛰어난 기교와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대견하다. 여러 연주자들의 동일한 곡을 어떤 식으로 연주해나가는지를 절묘한 편집에 의해 적나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영상물의 큰 매력이다.

[보충자료]

○ 파가니니 콩쿠르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발굴하기 위해 1954년 파가니니의 고향인 제노바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까지는 매년 열렸지만, 현재는 격년제로 진행된다. 죄르지 파욱, 살 바토레 아카르도, 기돈 크레머, 일라 그루베르트, 마시모 쿠파르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일라 그린 골츠와 같은 스타급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51회 콩쿠르에는 죄르지 파욱, 펠릭스 아요, 마시모 쿠파르타, 루돌프 바르샤이, 켄지 코바야시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중국의 팡닝이 1위, 한국의 이유라가 2위, 일본의 리카 마사토가 3위를 차지하였다.

○ 2위를 차지한 이유라는 1985년생으로 김남윤을 사사했다. 한국일보콩쿠르 우승 후 미국으로 건너가 강효와 도로시 딜레이, 미리암 프리드 등에게서 배웠다. 베르비에르, 말보로 등의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고, 2007년에는 에이버리 피셔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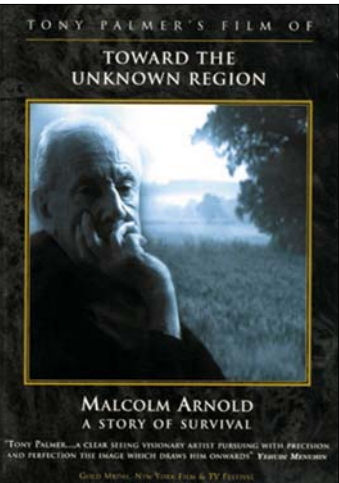
○ 최종진출자 중 한 사람인 이보경은 1986년생으로 한예중 예비학교에서 김동현을 사사했다. 한국일보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커티스에서 아론 로잔드를 사사했다. 2004년 경남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되었다.

○ 최종진출자 중에서 최연소였던 추현주는 1989년에 태어났다. 11살 때 케네디센터에서 내셔널 심포니와 협연하였고, 2001년에는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지기도 했다. 2002년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미지의 지대를 찾아 – 말콤 아놀드 이야기

영화 '콰이강의 다리' 음악을 쓴 현대작곡가, 말콤 아놀드의 모든 것

현대음악 작곡가라면 어려울 것이란 선입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친근한 대가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말콤 아놀드(1921~2006)일 것이다. 그 유명한 '보기 대령의 행진곡'이 나오는 데 이비드 린의 영화 <콰이 강 의 다리(1957)>의 주제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아놀드이며, 이 영화로 영국인으로는 처음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130여 편의 영화 음악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린 엔테테이너 지휘자 제라르 호프농과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고 가벼운 음악만 쓴 것도 아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말러와 마찬가지로 9곡의 교향곡을 남긴 진지한 작곡가요, 협주곡은 20여곡에 달한다. 이런 공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1970년에는 CBE를, 1994년에는 나이트 작위를 수여받았고 말년에는 치매로 고생하면서도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클래식 다큐멘터리의 거장 토니 팔머가 연출한 이 필름은 132분에 걸쳐 그의 삶을 빼곡하게 추적한다. 특히 교향곡 등 중요하고 심도있는 작품 중심으로 뼈대를 구성하면서도 적절한 인터뷰, 영화음악, 호프농 콘서트 등 가벼운 장면을 곁들여 서로 상이한 아놀드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조망하도록 했다.



TPDVD 112



Dynamic DVD 33506

비발디: 글로리아

글로리아 RV588 & 589, 살베 레지나, 스타바트 마테르, 협주곡 C장조 & D장조

아드리아나 아마토(소프라노)/ 라우라 브리올리(메조소프라노)/ 빈 징아카데미 합창단/
클라우디오 시모네(지휘)/ 이 솔리스트 베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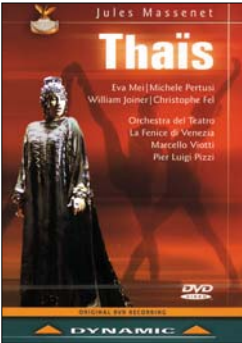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한 비발디의 종교걸작들

글로리아 RV589는 비발디가 남긴 종교음악들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다. 비발디가 불우한 소녀들의 구제기관이었던 오페달레 델라 피에타에 음악교사로 재직할 당시 완성한 곡으로 작곡가 특유의 밝고 아름다운 선율과 활발한 리듬으로 영광의 텍스트를 탁월하게 그려낸 걸작이다. 비발디는 가톨릭사제였음에도 미사의 다섯 악장을 완결한 작품을 하나로 남기지 않았다. 대신 미사의 단편을 독립적인 작품의 형태로 다수 남기고 있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 바로 RV589이다. 본 영상물에는 또 다른 글로리아인 RV588도 함께 담고 있다. 두 글로리아 외에도 또 다른 비발디의 인기 종교곡인 스타바트 마테르 RV621도 만나볼 수 있으며, 두 곡의 협주곡(RV581, RV562)과 한 곡의 소나타(RV130)가 간주곡처럼 삽입되어 본 영상물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비발디가 오랜 기간 활동했던 도시 베네치아의 상징적인 건물인 산마르코 바실리카와 중세를 대표하는 화가인 지오토의 그림들로 장식된 파도바의 카펠라 델리 스크로베니에서 녹화가 진행되었고, 연주와 더불어 두 역사적 명소의 구성구석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스네: 타이스

종교와 에로스의 극치끼리는 통한다! '타이스 명상곡'의 오페라

여기, 좋은 연출이 얼마나 작품의 진가를 살려내는지 입증하는 영상물이 있다.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연출한 마스네의 <타이스>다. 이 오페라에는 '타이스 명상곡'이란 지극히 아름다운 바이올린 독주곡이 삽입되었지만 줄거리가 잘 알려진 오페라는 아니다. 오페라 <타이스>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고급창녀 타이스와 그를 회개시키려는 수도사 아타나엘의 대결이 펼쳐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타이스는 신에게 귀의하고 아타나엘은 반대로 타이스를 사랑하는 인간적 욕정에 사로잡힌다. 피치는 종교적인 감동의 극치까지도 지극히 에로틱한 발레를 삽입하여 펼쳐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에로틱한 연출이 오히려 더 종교적 감동을 자아내고 미적 감동의 절정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서도 결코 종교적 메시지의 전달에 집착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연출한 <타이스>는 2008년 5월 서울에서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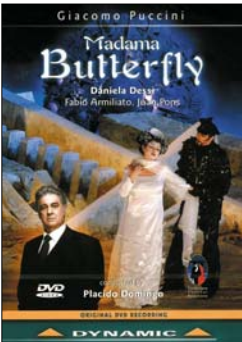


Dynamic DVD 33427

푸치니 <나비 부인>

제목에 착안하여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별레처럼 묘사한 독특한 연출

푸치니의 <나비 부인>은 미국 해군장교에게 핑커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택하는 일본 게이샤 초초상의 비극을 그린 오페라다. 대단히 아름다운 선율과 독특한 음악성을 지닌 작품이지만 역시 이 오페라가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문화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망을 드러내지 않고 핑커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초초상의 모습, 그러나 버림받은 것이 확실해지자 주저하지 않고 할복자살을 택하는 등등이 모두 서양인에게 특이한 문화다. 그래서 그동안 <나비 부인>의 연출은 일본적인 풍광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왔다. 여기 색다른 연출이 있다. 푸치니의 고장 토레 델 라고에서 벌어진 2004년 페스티벌 상황인데 연출자 스테파노 몬티와 의상 디자이너 굴리엘모 마리오토는 등장인물들의 의상을 발레의 그것으로 바꿔버렸다. 물론 무대도 그런 개념에 맞춰 제작되었다. 결국 초초상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며,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을 나비를 죽임에 이르게 만드는 일종의 해충의 무리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를 맡았으며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커풀인 다니엘라 데시(초초상)와 파비오 아르밀라토(핑커톤)가 주역을 부른 화제의 실황이다.



Dynamic DVD 33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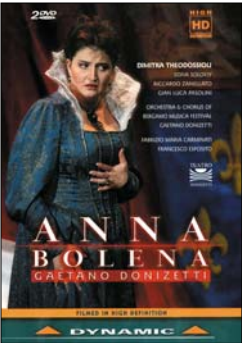


Dynamic DVD 33504

벨리니: 카풀레티가와 몬테키가

베로나에 전승된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에 기초한 오페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줄거리를 만드는 재능이 아니라 비유와 은유로 가득한 대사로 드라마의 격조를 극한까지 드높인 것에 있다. 대신 모티브는 영국 역사나 외국 민담으로부터 얻은 것이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가사(假死)의 비약에 관한 얘기도 원래 베로나를 비롯한 이탈리아 각지에 전승되던 얘기다. 빈센초 벨리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인답게 셰익스피어가 아닌 루이지 다 포르타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소설을 텍스트로 삼았다. 제목에서 카풀레티가는 줄리엣 집안이고 몬테키가는 로미오 집안이다. 등장인물도 셰익스피어와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줄리엣의 사촌오빠 티발트와 그녀의 약혼자 파리스 대신 두 사람이 복합된 캐릭터인 테발도가 등장한다. 이 오페라의 특이한 점은 로미오를 남자가 아닌 메조소프라노가 부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랑의 노래도 소프라노(줄리엣)와 메조소프라노의 이중창으로 불러진다. 대신 테발도 역을 테너에게 맡겼다. 본 영상물은 2005년 8월 제노바에서 공연된 실황이며 벨칸토 오페라의 스타 파트리차 초피가 줄리엣을, 뛰어난 음악성을 자랑하는 클라라 폴리토가 로미오를 불렀다. 지휘자 루치아노 아초첼라는 파트리차 초피의 남편이기도 하다.



Dynamic DVD 33534

도니체티: 안나 볼레나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영국 왕비 앤 볼린의 사랑과 죽음의 서사시

TV 시리즈 <튜더스>로 현대인에게도 잘 알려진 헨리 8세의 화려한 여성 편력은 수많은 비극을 낳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3년간 왕비를 지내고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앤 볼린의 얘기다. 앤 볼린은 형이 죽자 스페인 공주인 형수 캐서린과 결혼해야 했던 헨리 8세가 사랑에 빠져버린 궁전 시녀였다. 헨리 8세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캐서린과 이혼해야 했고 교황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극단적 방법을 취한 것이 영국 성공회의 창립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앤이 왕자를 낳지 못하자 헨리 8세는 다시 앤의 시녀 제인 세이모어에게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이번엔 제인과 결혼하기 위해 앤에게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처형해 버린 것이다. 도니체티는 16세기 영국 황실의 세 여왕 혹은 왕비 얘기를 일련의 오페라로 작곡했다. 이른바 '여왕 3부작'이다. 이중 첫 번째 얘기가 <안나 볼레나>인데 바로 앤 볼린을 이탈리아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2006년 가을 베르가모 페스티벌 실황인 이 영상물에는 마리아 칼라스를 계승하는 그리스의 대형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슈가 안나 볼레나 역을 맡았다. 도니체티 오페라 연출에 일가견이 있는 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가 사실적인 의상과 상징적인 무대를 잘 조화시켰다.



Dynamic DVD 33482

2005년 라 페니체 신년음악회

지휘 : 조르주 프레트레

안날리사 라스팔리오시(소프라노)/ 주제페 자팔리(테너)/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오페라계의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하는 베니스 신년음악회

수상도시 베니스의 상징과도 같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 1792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매년 첫날 이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의 그것과 더불어 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신년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5년 신년음악회의 주인공으로 나선 이는 오페라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존경받고 있는 지휘자 조르주 프레트르. 2008년 빈 신년음악회에서도 정정함을 만천하에 과시했던 이 노대가의 또 다른 노익장을 이 영상물에서도 만나게 된다. 로시니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으로 시작되는 본 연주회는 푸치니와 베르디의 유명 아리아들과 합창곡들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간주곡, <마농레스코>간주곡 등의 귀에 익은 선율들을 거쳐 항상 그래왔듯이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로 마무리된다. 유럽 정상급 극장들에서 최고의 비올레타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아날리사 라스팔리오시와 2003년 오페랄리아 콩쿠르 2위 수상자인 주제페 자팔리가 초대되었고, 미카 판 획케 무용단의 화려한 발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인트로렉션 영상에는 직접 피아노를 치며 구성진 노래를 들려주는 프레트르의 색다른 모습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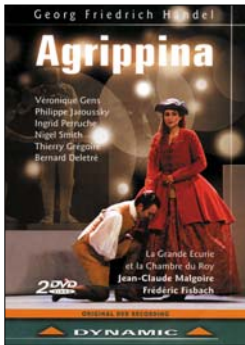


Dynamic DVD 33535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베르가모 도니제티 페스티벌 실황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잘 부르는 소프라노는 당장 벨칸토 오페라의 스타가 된다. 이탈리아의 젊은 콜로라추라 소프라노 데지레 랑카토레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극도의 고음을 무리없이 소화하고 어려운 콜로라추가 테크닉도 수월하게 구사하는 랑카토레의 실력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지만 드디어 난역으로 알려진 〈루치아〉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루치아〉는 벨칸토 오페라의 음악적 미학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줄거리는 모든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슬프다고 할 정도로 극한의 감동으로 몰고 가지만 사실 음악은 꿈꾸듯이 아름다운 선율의 연속이다. 즉 벨칸토 오페라는 아름다운 선율과 뛰어난 가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은 이탈리아식 사고방식의 상징이다. 2006년 가을 베르가모 페스티벌 실황에서 랑카토레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모두 발휘해 냈다. 그동안 다소 가벼운 역으로 이름을 알렸었지만 이번에 가장 유명한 정통 오페라를 통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베르가모 페스티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니제티 오페라의 전문가 프란체스코 에스포지토가 신선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Dynamic DVD 33431

헨델: 아그리피나

로마 황실의 권력욕과 애욕을 묘사한 헨델 초기 오페라의 대표작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은 바로크 오페라 최고의 고전인데, 약행으로 유명한 로마 황제 네로가 황비 오타비아를 버리고 부하 장군인 오토네의 아내 포페아와 결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세의 헨델이 이탈리아에서 작곡한 〈아그리피나〉는 〈포페아의 대관〉보다 60년 이상 늦게 작곡되었지만 줄거리는 〈포페아의 대관〉에 앞서 네로와 오토네가 황제 자리와 포페아를 놓고 겨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헨델은 이 오페라에서 성공을 거둔 후 영국으로 건너가 평생을 지내게 된다. 타이클 롤인 아그리피나는 네로의 모친이다. 남편인 클라디우스의 후계자로 네로와 오토네가 거론되는데 자기 아들이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 야심찬 음모를 꾸민다. 네로와 오토네는 둘 다 포페아를 사랑하기도 한다. 정의가 승리하는 오페라 세리아의 공식과 달리 이 오페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황제 자리를 더 탐낸 네로는 황제가 되고, 포페아를 황제 자리보다 소중히 여긴 오토네는 포페아를 차지하게 된다. 프랑스 고음악계의 원로인 장-클로드 말그와르가 지휘를 맡았고 세계적 소프라노 베로니크 강이 타이클 롤을 맡은 2003년 봄 실황이다. 미니멀리즘 무대지만 음악적 묘미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 프레데릭 피스바흐의 연출도 인상적.

마이어베어: 이집트의 십자군

프랑스 그랑 오페라의 지존, 마이어베어의 이탈리아 시절 대표작

자코모 마이어베어(1791~1864)는 독일인이지만 프랑스의 그랑 오페라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마이어베어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했던 오페라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자 살리에리의 충고에 따라 1816년부터 8년간 이탈리아에서 공부와 작곡 활동을 하게 된다. 〈이집트의 십자군〉은 이탈리아에 머물던 마지막 해인 1824년에 발표된 작품이며 이 오페라의 대성공에 힘입어 마이어베르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파리로 향하게 된다. 그 이후의 압도적인 성공의 발판은 바로 〈이집트의 십자군〉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오페라는 로시니의 원숙기 작품에도 많이 발견되는 십자군 전쟁 소재의 영웅적 멜로드라마에 속한다. 한때 잊혔던 이런 류의 오페라가 오늘날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에는 이탈리아의 천재적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공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정교하게 계산된 건축적 무대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간에 펼쳐지는 아이러니와 그 해결 방식의 미학을 즐기는 피치는 2007년 1월,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실황인 이 영상물에서도 현대인에게 불편한 소재를 명쾌하게 풀어내 보인다. 벨칸토 오페라의 스타인 소프라노 파트리차 초피가 여주인공 팔미데 역할을 노래한다.



Dynamic DVD 33549



Dynamic DVD 33470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기괴한 낭만주의자 호프만이 사랑한 각양각색의 여러 여인들...

〈호프만의 이야기〉는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오페라 리리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작곡자 자크 오펜바흐는 원래 가벼운 오페레타를 작곡하던 사람이었으나 마지막 작품은 진지한 오페라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호프만의 이야기〉에 매진하다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는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독일의 기괴한 작가 E.T.A. 호프만의 여러 작품에서 차린 것이다. 주인공 호프만은 원작자 바로 그 사람이며 그가 사랑했다는 다양한 유형의 여인(오페라에는 세 여인으로 상징화)들과 겪은 사랑의 실패담을 악마와 미술이 등장하는 등의 기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본 영상물은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총감독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마체라타 페스티벌 실황이다. 좌우 폭이 대단히 넓은 야외무대인데 건축적인 무대구성으로 유명한 피치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피치는 호프만이 사랑한 여인들은 물론이고 악마 역에 포커스를 맞춰 대단히 인상적인 효과를 냈다. 물론 루제로 라이몬디라는 대가수에게 악마 역을 맡겼다. 호프만 역은 현역 최고의 테너 중 한 사람인 빈센초 라 스콜라가 부른다.



Dynamic DVD 33512

베르디: 운명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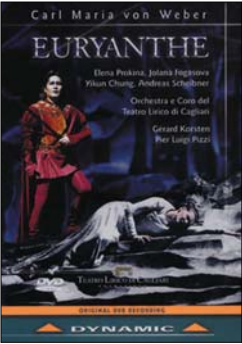
파바로티와 프레니의 고향 모데나에서 공연된 운명적 비극의 오페라

〈운명의 힘〉은 베르디 중기의 걸작이다. 러시아 황실가극장의 의뢰로 작곡되어 그곳에서 초연되었다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제목에서 풍기는 인상답게 베르디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 세 남녀의 인생을 비극으로 내모는 운명의 잔인한 힘을 그려낸다. 그 운명은 모두 우연한 총기 오발 사고, 마주침, 우정에서 비롯된다. 제목의 의미를 풀어쓴다면 '잔혹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까?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의 고향 모데나의 시립 가극장의 2006년 1월 실황인데, 주목할 대상은 단연 레오노라 역의 수잔나 브란키니다. 외모로 볼 때 흑인의 피가 섞였지만 브란키니는 로마 태생의 소프라노다. 어두운 음색에서 비롯되는 극적인 기운이 일품이며 대단히 섬세한 피아니시모가 표현력을 극대화시킨다.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여동생 레오노라와 그 애인을 추적하는 돈 카를로 역의 마르코 디 펠리체는 캐릭터에 잘 부합하며, 수도원장 역의 파올로 바탈리아는 종교성 그윽한 음성으로 레오노라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2막 2장에서 지극히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기 위해 설정된 프레치오실라 역은 2007년 11월 서울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플로라를 불렀던 티치아나 카라로가 맡았다. 연출과 무대는 비교적 전통적이다.

베버: 오이뤼안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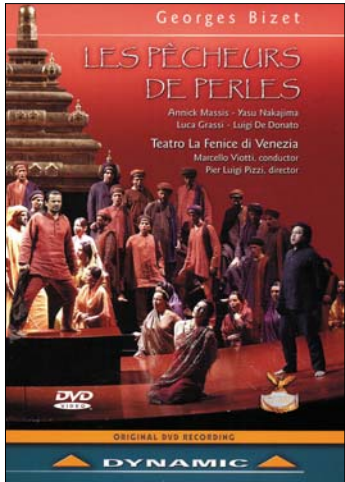
한국 테너 정의근이 열창하는 베버의 거대한 로망 오페라

〈마탄의 사수〉로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문을 연 칼 마리아 폰 베버는 다른 오페라를 쓰지 않았을까? 사실은 많이 남겼다. 서곡이 유명할 뿐이지만 〈오리뤼안테〉, 〈오베론〉은 상당한 걸작이요, 〈마탄의 사수〉보다 복잡한 줄거리를 가진 대작이다. 〈마탄의 사수〉보다 2년 후(1823)에 초연된 〈오이뤼안테〉는 로망 오페라, 즉 중세의 기사도 문학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음모에 휘말려 남편 아둘라로부터 정절을 의심당한 오이뤼안테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맺어진다는 얘기가 베버 특유의 명쾌한 선율과 〈마탄의 사수〉와 달리 대사가 아닌 레치타티보를 사용하는 2시간 40분짜리 거대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유럽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정의근이 아둘라 역을 부른 2002년 이탈리아 칼리아리 가극장 실황이다. 오이뤼안테 역은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소프라노 엘레나 프로키나가 열창했으며, 역사적인 오페라의 재연에 사명감을 불태우는 이탈리아의 거장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무대와 의상 디자인까지 총괄하며 로망에 어울리는 전설적인 분위기와 음악적인 분위기의 통합을 끌어냈다.



Dynamic DVD 33408

비제: 진주조개잡이



Dynamic DVD 33459

‘나디르의 로망스’, 그 황홀한 매력이 넘치는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한 조르주 비제는 그에 앞서 약간의 오페라를 더 남겼는데 그중 〈진주조개잡이〉가 가장 중요하다. 나디르와 주르가의 이중창 ‘성스런 사원에서’,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오토-콩트르 전통이 남아있는 유명한 테너 아리아 ‘나디르의 로망스’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진주조개잡이〉는 세일론, 즉 지금의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하는 이국취미의 비극 오페라다. 우리나라 에도 많은 팬이 생긴 이탈리아의 세계적 오페라 연출가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남아시아 섬나라의 특징을 놀랍도록 뚜렷하게 포착하여 그윽한 감동을 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리릭 소프라노 아니크 마시스(레일라)가 종교적 영성마저 느껴지는 놀라운 미성을 들려주며, 동양인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진출한 일본 테너 야수 나카지마(나디르)도 프랑스 리릭 오페라의 서정성을 잘 펼쳐내고 있다.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라 페니체 극장에서 공연된 2004년 4월 실황이다.

[보충 자료]

○ [1막] 세일론의 황량한 해안이다. 부족의 지도자로 새로 뽑힌 주르가는 옛 친구 나디르가 오랜만에 돌아오자 경계하며 맞이한다.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사원의 한 여인을 보고 동시에 반한 나머지 라이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 두 사람의 우정을 방해할 것은 없어 보인다. 먼나라로부터 무녀(巫女)가 도착하는데 주르가는 그녀에게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말고, 남자와 사랑해서는 안 되며, 항상 진주조개잡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실이 무녀는 주르가와 나디르가 동시에 사랑했던 레일라로서 나디르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녀임을 알아차린다.

○ [2막] 나디르의 줄기찬 구애에 레일라는 흔들리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들리고 만다. 주르가는 두 사람을 벌하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지만 무녀가 바로 레일라임을 알고는 질투심이 발동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명한다.

○ [3막] 주르가는 레일라가 갖고 있는 목걸이를 통해서 그녀가 오래전의 생명의 은인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처형장으로 달려가 마을에 불이 났다고 소리쳐 사람들을 흠어지게 한 다음 나디르와 레일라를 도망치게 한다. 이를 본 마을의 고승은 주르가의 배반을 폭로하고 주르가는 사람들에게 맞아 숨을 거두면서 레일라에 대한 사랑을 토로한다.



베르디: 에르나니



Dynamic DVD 33496

베르디 초기의 빛나는 걸작 〈에르나니〉! 22년만의 영상물

베르디의 초기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는 〈나부코〉, 〈에르나니〉,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맥베드〉를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선율미와 극적인 박력에서는 〈에르나니〉를 따를 작품이 없다. 그런데도 영상물은 극히 드물어서 1982년의 라 스칼라 실황(플라시도 도밍고, 미렐라 프레니 출연, 리카르도 무티 지휘)과 1983년 메트로폴리탄 실황(루치아노 파바로티, 레오나 미첼 주역, 제임스 레바인 지휘) 이후에 후속 영상물이 발매되지 않았다. 본 DVD는 그 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5월 파르마의 왕립가극장 실황이며 마르코 베르티(에르나니), 카를로 구엘피(돈 카를로 국왕), 자코모 프레스티아(실바) 등 현재 이탈리아 성악계의 대들보들이 대거출연하고 있다. 미술적 요소를 극히 강조한 피에르 알리의 연출과 무대도 인상적이다. 〈에르나니〉는 한 여인을 둘러싼 세 잘난 남자들의 대결이다. 귀족이지만 산적 두목으로 변신한 에르나니, 스페인 국왕 돈 카를로, 그리고 실바 대공이 정치적 사활까지 건 필사의 경쟁을 벌인다. 에르나니가 엘비라를 차지한 결혼식 연회에서 상황은 뒤바뀐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실바 대공이 과거 에르나니가 목숨을 내놓기로 약속했던 폴피리를 분 것이다. 에르나니는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지만 결국 엘비라까지 목숨을 버리는 파국을 맞는다.

벨리니: 노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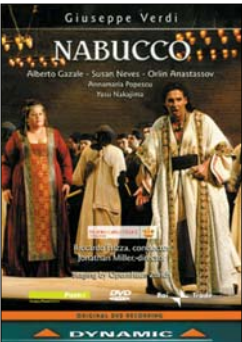


Dynamic DVD 33561

칼라스를 잇는 그리스의 드라마티코, 디미트라 테오도슈의 〈노르마〉

빈센초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노르마〉는 주세페 베르디 이전의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에서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중요성을 제시한 최초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주인공 노르마는 고대 갈리아 지방의 여제사장이며 고대 로마의 점령군에 대항할만한 권력을 지닌 여인이기도 하다. 이런 여인이 사실은 로마 장군 풀리오네와 금지된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고 숨겨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풀리오네는 노르마의 시녀인 아달지사와 새로운 사랑에 빠져버리고 이 때문에 노르마는 복수의 날을 갈게 된다. 〈노르마〉는 소프라노 역이 너무 어려워 오랫동안 잘 공연되지 않았지만 마리아 칼라스(1923~1977)의 등장으로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칼라스 이후에 조운 서덜랜드, 몽세라 카바예가 각광을 받았지만 칼라스의 카리스마를 재현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칼라스의 조국 그리스에서 드미트리 테오도슈라는 대형소프라노가 탄생했다. 1999년에 국제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아름다운 음성과 커다란 성량을 겸비한 보기 드문 벨칸토 소프라노로 떠오른 테오도슈는 현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노르마〉일 것이다. 벨리니의 고향인 시칠리아 섬의 카타나에서 2005년에 공연된 실황이며 전통성과 상징성이 잘 조화를 이룬 무대다.

베르디: 나부코



Dynamic DVD 33465

성경 오페라의 최고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포함된 걸작

성경은 그리스-로마 신화와 더불어 유럽 문화의 원류다. 그러나 그리스-로마 신화가 반복적으로 오페라의 소재로 이용된 것과는 달리 성경을 직접 이용한 오페라는 많지 않다. 다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가 오라토리오나 수난곡 등 다른 극음악 양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 〈나부코〉는 생상의 〈삼손과 델릴라〉와 더불어 성경 오페라의 대표작이다. 열왕기에 나오는 나부코는 히브리 민족을?바빌론으로 강제 이주시킨 ‘바빌론 유수’의 주인공이며, 원래 이름은 느부카드네צר인데 이탈리아식으로 줄인 것이다. 이 오페라는 베르디의 출세작이다. 특히 나부코의 큰 딸 아비가일레는 애초부터 어두운 음색의 드라마티코를 염두에 두고 악역으로 창조된 캐릭터로서 나부코와 함께 공연의 성패를 좌우한다. 또한 3막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가라 내 마음이며,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가사의 명곡으로 초연 당시에는 이탈리아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거장 조나단 밀러가 연출한 취리히 오페라 프로덕션을 이탈리아 제노바의 카를로 펠리체 가극장에서 2004년에 공연한 실황이다. 젊고 참신한 유망주로 출연진을 구성하였으며, 난역인 아비가일레 역의 수잔 네베스는 날카롭고 집요한 음색이 돋보인다. 이스마엘레를 부른 일본 테너 나카지마 야스하루도 인상적이며 리카르도 프리차의 지휘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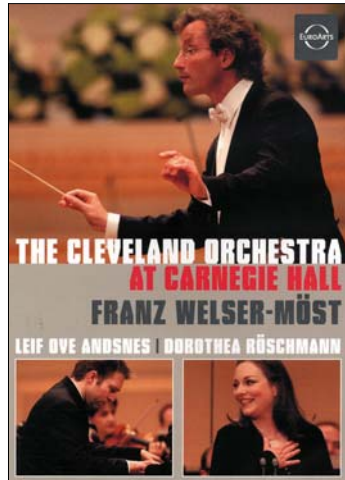
EuroArts DVD

www.euroarts.com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카네기홀 공연

* 주페: 경기병 서곡 / *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17번

* 요한슈트라우스 : '예술가의 생애', '안네 폴카' '박쥐' 서곡



Euroarts DVD 2056578

카네기 홀을 가득 채운 모차르트와 요한슈트라우스의 아름다운 선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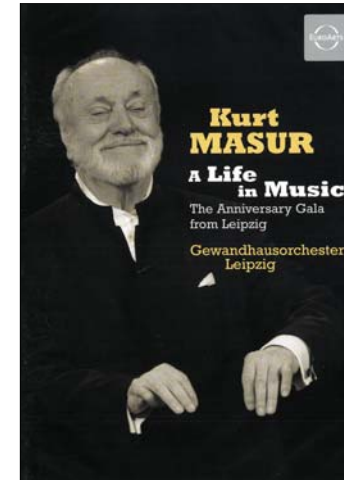
2006년 10월 4일 미국 음악계의 상징과도 같은 공연장인 카네기홀에서 펼쳐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회 실황.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고, 오스트리아 출신 지휘자의 손끝이 만들어내는 흥겨운 빈 왈츠가 역사적인 공연장을 가득 메운다. 너무나 유명한 선율이지만 영상물이 의외로 많지 않은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연주회는 시작된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7번의 독주를 맡은 이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사랑스러운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마무리되면, 현존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으로 각광받는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이 우아한 자태로 매혹적인 백작부인의 아리아 두곡을 노래한다. 마지막은 요한슈트라우스의 친근한 작품들의 차지다. 벨저-뫼스트의 섬세한 감각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우수한 기량으로 만들어진 왈츠 '예술가의 생애'와 안네 폴카, 그리고 '박쥐' 서곡이 이 화려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충자료]

○ 올해 초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애호가들을 열광시켰던 노르웨이 출신의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는 세계적인 명성의 연주자이자, EMI의 간판급 아티스트이다. 하이든 피아노협주곡, 그리고 그의 서정모음곡, 슈만/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으로 그라모폰상을 3차례나 수상했으며, 파파노와 협연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집 디지털시대의 명반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 독일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도로테아 뢰슈만은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이다. 초기에는 리트 전문가로 활동했고, 고음악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199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하여 아르농쿠르의 밑에서 수잔나를 노래한 이후 세계적인 모차르트 전문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최근 안나 네프렌코가 수잔나를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M22 속의 '피가로와 결혼' 영상물에서도 백작부인을 노래하는 뢰슈만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프란츠 벨저-뫼스트는 1960년 브루크너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태어났다. 198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데뷔하였고, 1990년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차세대 유망주로 급부상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취리히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고, 2002년부터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는 세이지 오자와의 후임으로 빈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Euroarts DVD 2056328

쿠르트 마주어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

MDR Radio choir/ Gewandhausorchester, Leipzig/ Kurt Masur

마주어의 넉넉한 인품과 뜨거운 음악애가 담긴 감동의 갈라 콘서트

2007년 6월 독일 출신의 거장 쿠르트 마주어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갈라 콘서트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니콜라이의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카프리치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2번', 뒤카의 '마법사의 제자', 비제의 '카르멘' 전주곡과 같은 정통 클래식 명곡들은 물론이거니와,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흥겨운 '맘보', 거쉰의 '포기와 베스' 발췌, 보사노바의 황제 카를로스 조빔의 불후의 히트 싱글 '이파네마의 소녀'의 멋들어진 관현악편곡 등의 파격적인 레퍼토리들이 함께 자리 잡았다. 거장의 손끝은 힘겹게 떨리고 말투 또한 많이 어눌해졌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변함없이 싱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무대다. 독일의 대표하는 배우이자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하랄트 슈미트가 이 특별한 잔치의 호스트를 맡아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마주어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을 말해주며, 코파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의 명사들의 모습도 객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보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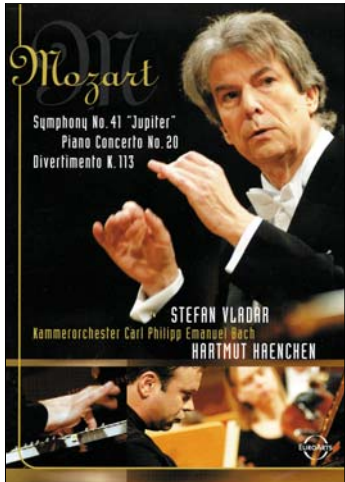
○ 쿠르트 마주어는 라이프치히가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다. 젊은 시절 이 도시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시작되었던 인연은, 26년 동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를 맡으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특히 마주어는 동독이 붕괴되기 직전 이 도시에서 발생했던 시민혁명을 평화적으로 이끌면서 음악계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 이 갈라 콘서트의 호스트로 나선 하랄트 슈미트는 독일의 자니 카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자, 배우이며, 자신의 이름을 딴 인기 토크쇼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마주어의 특별한 부탁으로 이 갈라 콘서트의 진행자로 나섰고, 거친의 작품에서는 독창자로 나서서 멋진 노래솜씨를 보여주기도 한다.

○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시작은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81년 게반트하우스(직물 회관)에 자리 잡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역대 카펠마이스터 중에는 멘델스존, 라이베크와 같은 유명 작곡가들의 이름이 발견되며, 근세에 들어와서도 니키쉬, 푸르트벵글러, 발터, 콘비츠니, 노이만 등의 거장들이 연이어 맡으며 동부 독일을 대표하는 명문 오케스트라로 육성하였다.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20번, 교향곡 41번 “Jupiter”



Euroarts DVD 2055088

Stefan Vladar(pf) / Kammerorchester Carl Philipp Emanuel Bach / Hartmut Haenchen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협주곡과 교향곡을 한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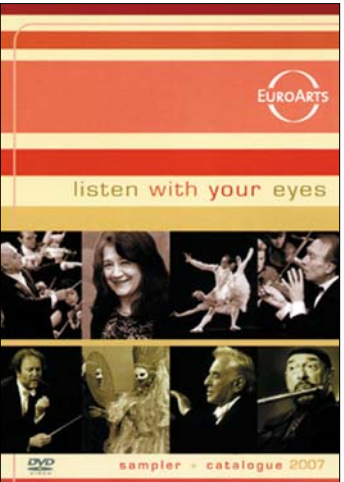
2005년 11월 13일 베를린의 유서 깊은 콘체르트하우스에서 펼쳐진 특별한 모차르트 콘서트 실황. 독일의 실력파 지휘자 하트무트 헨헨(Harmut Haenchen)이 자신이 이끄는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 캄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협주곡과 교향곡을 함께 연주하였다. 모차르트가 15세 때 작곡한 아기자기한 디베르티멘토 K113으로 시작되는 이 연주회는 첼로를 제외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서있는 상태로 연주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악장 로망스가 너무나 유명한 피아노협주곡 20번 K466은 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슈테판 블라다가 독주를 맡아서 섬세한 터치와 안정된 기교의 연주를 들려준다. 헨헨의 다이내믹한 지휘가 빛어낸 '주피터' 교향곡 역시 훌륭하다. CPE 바흐 캄머 오케스트라는 비교적 소편성의 악단이지만,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의 당당한 위용과 박력을 유감없이 표현해내고 있다.

[보충자료]

○ 연주회가 열린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는 1821년에 완공된 역사적인 클래식 공연장이다. 이곳에서 베버의 '마탄의 사수' 초연이 성공적으로 펼쳐졌고,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의 베를린 초연이 있었으며, 파가니니와 리스트의 초절기교가 관객들을 열광케 만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 2차 대전으로 전소된 이후 현재의 건물은 1984년에 재건된 것이다.

○ 피아니스트 슈테판 블라다는 1965년 빈에서 태어났다. 1985년 베토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실연과 레코딩 양쪽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대열에 올라섰다. 현재는 빈 음악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낙소스, 아르모니아 문디 프랑스, 소니 등을 통해 20장이 넘는 음반을 내놓았다.

○ 지휘자 하트무트 헨헨은 1943년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1980년부터 베를린의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 캄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1986년에는 네덜란드 오페라와 네덜란드 필하모니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이들과 더불어 피에르 오디 연출의 링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1995년부터는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수석객원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Euroarts DVD 2020078

유로아츠 07/08년 Sampler

- 유로아츠의 대표적인 타이틀 총망라한 하이라이트
- 3시간동안 세계거장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3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 시대 최고 거장들의 향연 !!!

유로아츠가 자랑하는 세계최고의 거장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난다. 유럽을 대표하는 클래식 전문 DVD 레이블인 유로아츠의 대표적인 타이틀을 총망라한 명실상부한 하이라이트 모음집이다. 뵘, 카라얀, 번스타인, 박하우스, 로스트로포비치, 메뉴힌과 같은 추억의 이름들과 더불어, 아바도, 바렌보임, 샤이, 아르헤리치, 샤함, 나가노, 루이지, 브렌델, 도밍고 등의 현존 거장들의 생생한 모습도 함께 만난다. 엔리코 모리코네와 미셸 르굴랑의 추억의 영화음악과 더불어, 락그룹 제스로 톨의 리더 이안 앤더슨의 독특한 모차르트 연주도 만나볼 수 있다. 오페라, 리사이틀, 관현악 콘서트, 발레, 히스토리컬 다큐멘터리 등 유로아츠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골고루 수록하고 있으며,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나 말러 교향곡 7번과 같은 대곡들의 경우도 한 악장 전체를 온전히 수록함으로써 감상자들을 배려하였다.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로버트 홀/ 마티아스 휠레/ 페터 자이페르트/ 안드레아스 슈미트/ 에미리 매기 외
다니엘 바렌보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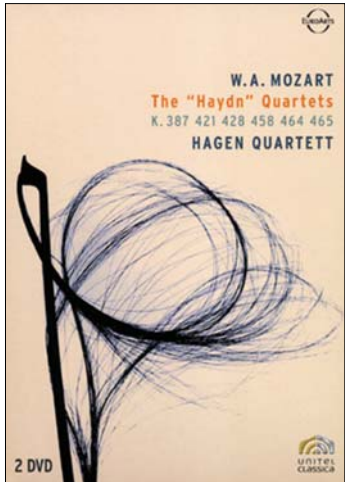
최강의 '마이스터징거' 영상물 DVD로 등장하다.

바이로이트 역사상 최고의 '마이스터징거' 프로덕션으로 많은 바그네리언들의 사랑을 받았던 볼프강 바그너 연출의 1999년 무대가 드디어 DVD로 발매되었다. 바그너가 남긴 이 위대한 희극의 뮤지컬드라마에서 과거 전체주의의 위압적인 그림자를 말끔히 제거하고자했던 볼프강 바그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연출로, 현존 최고의 바그너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바그너 가수들의 열창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로버트 홀(한스 작스), 마티아스 휠레(포그너), 안드레아스 슈미트(베크메서) 세 사람이 펼쳐나가는 저음의 향연과 더불어 한국이 낯선 자랑스러운 베이스 연광철이 연기하는 야경꾼 역시 무대의 한 축을 든든히 채워준다. 명실상부한 헬덴 테너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던 페터 자이페르트(발터)와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으로 막 두각을 드러내던 시점의 에밀리 맥기(에바)의 호흡도 탁월하다. 16/9 애너모르픽 화면과, PCM 스테레오, 돌비 5.1채널, DTS 5.1채널의 3가지 오디오포맷을 제공한다.



2DVD SET

Euroarts DVD 2072358



Euroarts DVD 2072328

모차르트: ‘하이든’ 현악사중주

하겐 현악사중주단

-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하겐사중주단의 큰 선물
- 현 세계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하이든사중주”
- 모차르트가 하이든에게 헌정한 “하이든사중주곡” (Nr.15-19)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의 하나인 하겐 현악사중주단이 모차르트의 ‘하이든’ 현악사중주에 도전하였다. 1998년 1월 26일 모차르테움에서 펼쳐졌던 3시간 30분가량의 마라톤 연주회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 것이다. 모차르트는 1780년대에 존경과 더불어 나이차를 초월한 우정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파파 하이든에게 헌정하기 위해 일련의 현악사중주들을 완성하였다. 이들이 바로 흔히 ‘하이든 사중주’라고 불리는 현악사중주 15에서 19번까지의 여섯 작품들이다. 1981년 잘츠부르크 출신의 4남매가 처음 결성했던 하겐 사중주단은 중간에 한 번의 멤버교체를 거친 뒤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팀워크와 뛰어난 연주력으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정상급 현악사중주단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치적인 해석과 젊은 감각, 그리고 작곡가와 같은 잘츠부르크 출신이라는 자긍심까지 더해져 동곡의 연주사에 일획을 긋는 뛰어난 연주가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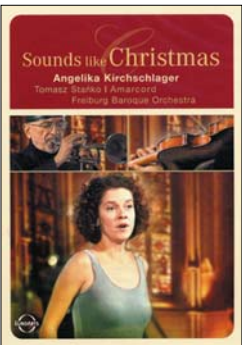
【 보충자료 】

모차르트가 하이든에 헌정한 “하이든사중주곡” (Nr. 15-19)

○ 여섯 편의 ‘하이든 현악사중주’는 1785년 빈에서 출판되었다. 모차르트는 나이를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었던 등직한 음악동료 요제프 하이든에게 이 작품들을 헌정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 모차르트는 현악사중주의 대가였던 하이든에게 이 작품을 바침으로써 연장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더불어 자신 역시도 같은 장르에서 그 못지않은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이다.

현 세계 최정상급 하겐 사중주단

○ 하겐 사중주단은 1981년 잘츠부르크 출신의 네 남매인 루카스, 안젤리카, 베로니카, 클레멘스가 함께 결성한 가족 실내악단이다. 솔리스트로서의 캐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제2바이올린을 맡았던 안젤리카가 탈퇴하였고, 그 자리를 라이너 슈미트가 대신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정상급 현악사중주단으로 활약 중이며, 최근에는 아바도가 결성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도 참여하였다.



Euroarts DVD 2052129

바로크 명곡들과 함께 하는 감동의 성탄절

Angelika Kirchschrager(ms)/ Tomasz Stanko Quartet/ Ensemble Amarcord/ Freiburg Baroque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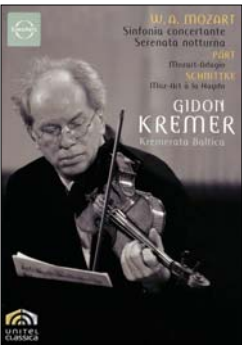
바로크 명곡들과 함께 하는 감동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위한 바로크 명곡들과 정통 캐럴, 그리고 캐럴 선율에 기초한 즉흥 재즈연주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크리스마스용 DVD. 독일 ZDF방송에서 제작한 특집 TV 프로그램을 위해 녹화된 영상물로 동부 독일 로마네스크 가도에 위치한 12세기 시스터시안 수도원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한 음악제전을 펼친다.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흐슐라거가 바흐의 칸타타 BWV82 중의 아름다운 아리아 ‘고단한 두 눈아 이제 잠들라’(Schlummert ein)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중의 아리아 ‘준비하라 시온아’(Bereite dich, Zion), 그리고 헨델의 메시아 중의 ‘주께서 높이 오르셨네’(Thou Art Gone up High)를 경건하게 노래하며,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Il riposo’와 코렐리의 크리스마스 협주곡이 성탄의 밤을 풍요롭게 만든다. 고딕 건축물의 장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남성 중창단 앙상블 아마코드의 아름다운 캐럴과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트럼펫터 토마슈 스탄코의 캐럴 즉흥연주도 성탄의 감동을 더욱 뜻 깊게 만든다.

기돈 크레머

기돈 크레머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다섯 가지 모차르트 모습들...

2002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실황, 현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를 아름답게 들려준다. 독주 비올라의 눈부신 활약을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작품을 크레머와 크레머라타 발티카의 산뜻한 연주로 만나보는 즐거움이 대단하다. 바로크 시대의 합주협주곡 양식을 계승한 이 독특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천진한 선율과 아가자기한 악곡구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모차르트가 남긴 협주곡 양식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이다. 신포니아 콘체르탄테와 세레나타 노투르나 K239이 전통적인 과거의 모차르트를 대변한다면, 아르보 패르트의 ‘Mozart-Adagio’와 슈니트케의 ‘Moz-Art a la Haydn’은 현대 작곡가들의 손을 통해 재탄생한 이시대의 새로운 모차르트를 상징한다. 두 현대음악계의 대가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통해 표현한 모차르트의 이미지가 신선하기 그지없다. 재치만점의 패러디작품 ‘맥모차르트의 밝은 달밤의 소아곡’이 선사하는 큰 웃음 또한 함께 나누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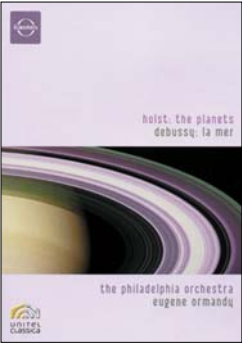
Euroarts DVD 2072228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행성과 바다

Eugene Ormandy/ The Philadelphia Orchestra

20세기 가장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관현악곡 “행성, 바다”

LD 시절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유진 오먼디/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홀스트 행성 전곡이 DVD로 웃을 갈아입었다. 자신의 천부적으로 예민한 청력과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최고의 황금기를 일구었던 오먼디의 조용한 카리스마를 이 탁월한 영상물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20세기에 완성된 관현악곡들 중 가장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두 작품인 홀스트의 ‘행성’과 드뷔시의 ‘바다’에서 흔히 ‘오먼디 사운드’라고 일컬어지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특유의 따뜻하고도 화려한 사운드 스펙트럼이 한층 더 위력을 드러낸다. 두 작품 모두 1977년 6월 24-26일 필라델피아의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의 콘서트실황을 녹화한 것으로, 최신 영상들에 비해 다소 화면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불가피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스코어의 구석구석을 지휘자만큼이나 상세하게 꿰뚫고 있는 듯한 커크 브라우닝의 탁월한 카메라 연출 덕분에 두 작품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이 영상물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uroarts DVD 2072268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정확한 기교를 통한 폭넓고 흐트러짐 없는 연주...
세 연주자의 완벽한 호흡!!!

Cleio trio

First Impression

CARL REINECKE | BRUCH | MOZART



연주

이임수(클라리넷), 김성은(비올라), 이형민(피아노)

그리스 신화에서 역사에 남길 만한 일을 기록해 오래도록 기리는 역할을 담당한 여신인

클레이오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진 **앙상블 클레이오!!!**

국내무대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하나되어 완벽한 앙상블을 표현해내고 있는 이들은
정확한 기교를 통한 폭넓고 흐트러짐 없는 연주로 호평받고 있다.



표지사진

Giuseppe di Stefano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8년 2, 3월호

통권 제 30호 발행 : 2008년 4월 5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